

www.kibo.or.kr

2013 UNGC COP +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2013 UNGC COP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기술이 현실이 되는 길
기보로(路) 가능합니다!

창의와 혁신 그리고 열정의 이름, Kibo
대한민국 기술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2013 UNGC COP CONTENTS

CEO 인사말	4
1장 경제 동향	6
2장 중소·벤처기업 동향	16
3장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22
제1절 개요	23
제2절 일반현황	25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32
1. 총괄	32
2. 기술보증	36
3. 기술평가	46
4. 보증연계투자	60
5. 기업지원	62
6. 실패예방·구상권관리·재기지원	68
7. 인재채용 및 인력개발	71
8. 고객만족	74
9. 윤리경영	76
10. 리스크 관리	78
11. 정보화 업무	79
12. 사회공헌 활동	82
13. 국제교류 및 협력	84
부록	87
1. 결산 재무제표	87
2. 상임/비상임이사	90
3. 운영위원	92
4. 주요일지	93
5. 영업점 현황	94

CEO MESSAGE



기보를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정부, 국회, 언론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국내 소비위축과 설비투자부진 등 실물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아 자본이 영세한 기술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한편 기보는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9조 7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하여 기술창업지원, 신성장동력확보, R&D 지원 등 3대 중점 지원분야에 기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개성공단입주기업, 조선기자재 영위기업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부흥이라는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응하여 사업의지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와 기술융합 단계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기술·산업융합특례보증'등을 시행하였으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IP)보증을 확대 실시 하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 경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경기 회복지연 및 내수부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기보의 주 고객인 기술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리라 전망 됩니다.

기보는 올해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 전년 계획 대비 3천억원이 증가한 18조 7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조경제 기반조성 및 구현을 위하여 예비창업자사전보증, 지식재산(IP)보증 등 고위험 신성장분야에 2조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는 TB(Tech Bureau)사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구현 및 기술금융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사업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패예방 및 실패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 분위 기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직원과 고객의 청렴도 및 윤리의식 제고와 사회공헌활동 등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으로 신뢰받는 금융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중소기업, 유관기관,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기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이사장 김한철

김한철

01

경제동향

ECONOMIC TRENDS



세계경제

개황

최근 2~3년 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세계경제는 2013년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다. 2013년 상반기 유로지역의 마이너스 성장과 신흥국의 저성장으로 3% 미만의 성장을 하였으나, 하반기 선진국들의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속도로 성장률이 상승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기 회복세가 진행 중인데 반해,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은 과거 고성장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그 동안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성장모형을 전환함에 따른 충격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신흥국들의 부채비율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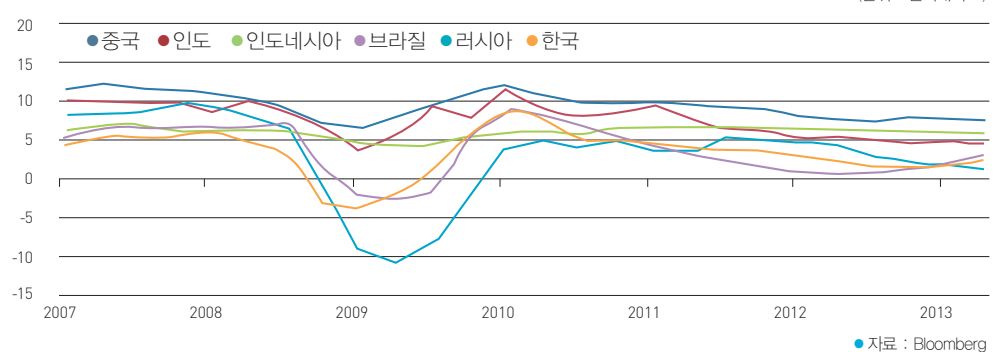
선진국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신흥국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전기대비 %)



국가별 동향

Eurozone

China

Japan

Eurozone



●●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전기대비 양(+)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6분기동안 지속되었던

경기위축에서 벗어났으며, 2011년 8월 이후 23개월째 기준선(50)을 하회 하였던 제조업 PMI가 7월에는 기준선을 상회(50.3)하였고 12월에는 21개월내 최고치(52.7)를 기록하는 등 유로권은 경기위축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Japan



●● 일본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내수소비 및 수출부문의 회복으로 연결되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4분기 1.0% 증가했던 가계소비지출이 2/4분기 1.4%, 3/4분기 1.8%를 기록하는 등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와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 증가율도 증가세로 돌아서 1/4분기 $\Delta 3.8\%$ 에서 3/4분기 1.5%로 개선되었고, 소비자물가는 3/4분기 0.7%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USA

USA



●● 미국

미국경제는 수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정책 및 대규모 양
적완화의 영향으로 4/4분기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연율)

3.2%기록하는 등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30% 가량 하락하였던 주택가격도 2013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산가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 연준은 이러한 배경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하였다.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월에는 7%를 기록하였으며, 3/4분기 성장률은 잠정치(3.6%)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4.1%를 기록했으며 소비와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China



●● 중국

중국경제는 2/4분기 7.5%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기부터 소비, 투자, 성장의 회
복이 나타나면서 3/4분기

7.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0월 들어서도 산업생산 증가율이 10%대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외수요는 여전히 불안하여 1/4분기 18.9%에 달했던 수출 증가율이 2/4분기 4.1%, 3분기 3.9%로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3.2%를 기록하면서 물가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자물가는 2012년 2/4분기 이래 6분기째 디플레이션을 이어가고 있다.

●● 기타 신흥경제국

2012년에 크게 부진하였던
브라질이 소폭 개선된 반면
인도, 러시아 및 ASEAN5의
성장세는 대부분 전년에 비

해 둔화되었다. 브라질은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2016년) 관련 건설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2.5%대의 성장세를 실현하였고, 러시아는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 부진, 투자 저조 등으로 1%대 중반의 성장에 그쳤으며, 인도는 내수 부진과 임금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으로 2003년(4% 성장) 이후 가장 낮은 3%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5월 이후 지속된 금융시장 불안으로,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내수 부진으로, 베트남은 개혁추진 과정에서 심리 둔화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필리핀은 4/4분기중 발생한 태풍(Haiyan) 피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전년과 비슷한 6%대 후반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5.2%를 기록한 이후 유로존 위기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4년에는 미국과 유로존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흥국은 선진국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자 우려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불안 및 투자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의 투자조정이 지속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활력이 과거 경기회복기 만큼 높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3년의 3.1%보다 소폭 증가한 3.4%~3.7%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국제기구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유럽의 경기회복세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효과의 감소, 중국경제의 성장을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고조 등은 경기를 하강시키는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e)	2015(e)
전세계	3.1	3.0	3.7	3.9
선진국	1.4	1.3	2.2	2.3
미국	2.8	1.9	2.8	3.0
유로	-0.7	-0.4	1.0	1.4
일본	1.4	1.7	1.7	1.0
신흥국	4.9	4.7	5.1	5.4
ASEAN5	6.2	5.0	5.1	5.6
중국	7.7	7.7	7.5	7.3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1)



국내경제



개황

2012년 수출감소와 내수부진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2013년에는 불안한 대외여건 하에서도 취업자수 증가 확대, 물가상승률 하락,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등과 맞물려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내수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전세가 급등 등으로 인한 소비 증가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외수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는 낮게 유지되었으나, 수입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오히려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는 모습이다.

지출부문별 성장을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GDP (전기대비)	2.8 (0.8)	2.4 (0.3)	1.6 (0.0)	1.5 (0.3)	2.0	1.5 (0.8)	2.3 (1.1)	3.3 (1.1)
최종소비지출	2.1	1.6	2.1	2.8	2.2	1.4	2.3	2.3
민간소비	1.3	1.0	1.7	2.7	1.7	1.5	1.8	2.1
정부소비	4.9	3.6	3.5	3.5	3.9	1.3	3.8	3.1
총고정자본형성	3.7	△2.6	△2.5	△4.2	△1.7	△3.8	2.9	5.9
건설투자	△0.4	△3.1	△0.3	△4.2	△2.2	2.4	7.2	8.6
설비투자	8.8	△3.5	△6.9	△5.2	△1.9	△11.9	△4.6	1.5
총수출	5.7	3.5	3.2	4.4	4.2	3.4	5.7	2.4
총수입	4.7	0.5	1.4	3.5	2.5	1.8	4.7	2.3
GDI	1.8	2.0	2.8	2.4	2.3	3.6	5.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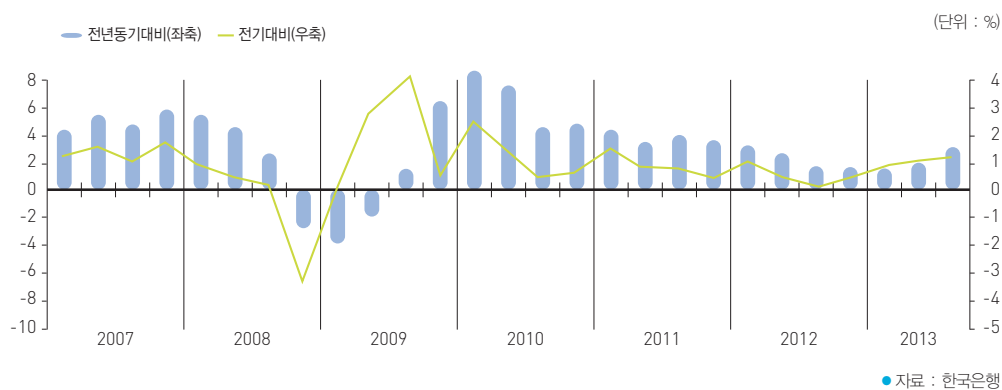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주요 부문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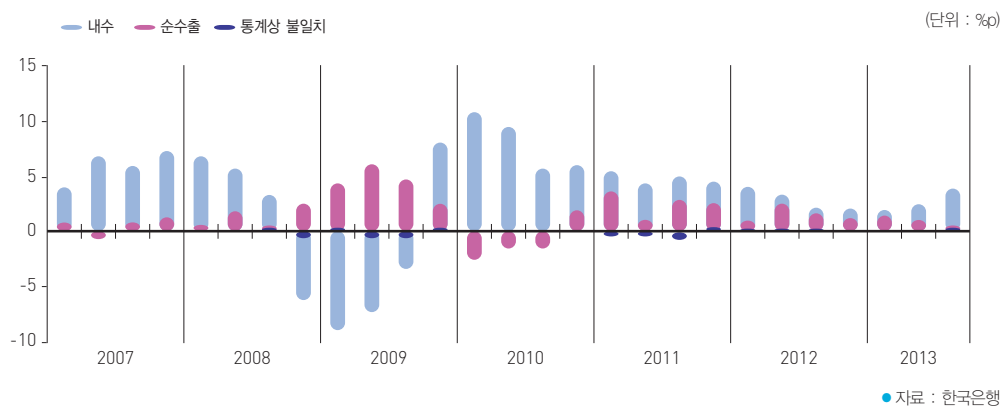
● 경제성장

경제성장률은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잠재성장률 3.8%에 크게 못미치는 2%대 중후반을 기록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5% 증가하였으며, 건설업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2% 증가하였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는 내수 부문의 기여도는 3.3%p, 순수출 부문의 기여도는 0.2%p로 3/4분기중 GDP 성장은 내수 부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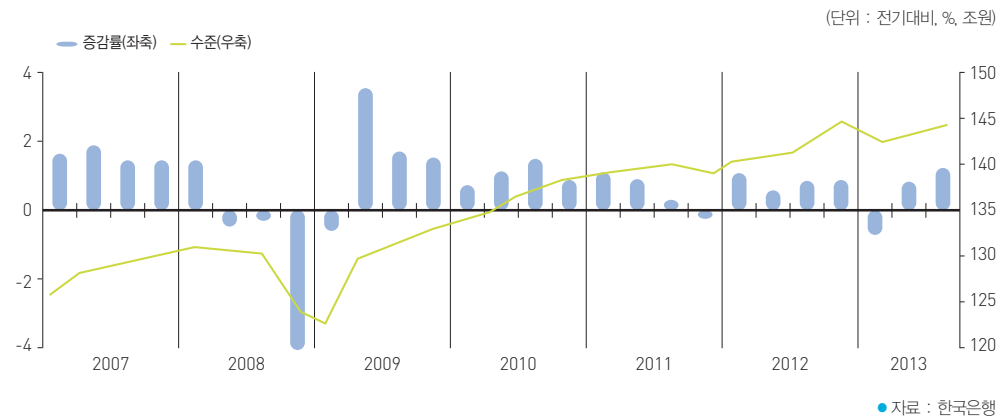
성장기여도 추이



●● 민간소비

2013년 3/4분기 중 민간소비는 식료품, 주류 등 비내구재와 의료,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다. 재별 판매액을 살펴보면,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의 증가(6.2%)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 및 컴퓨터 판매 감소(△15.4%)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준내구재는 신발·가방을, 비내구재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각각 2.2%, 1.2% 증가하였다.

민간소비 추이



●● 설비투자

2013년 3/4분기 중 설비투자(한국은행)는 산업용운반기계,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면서 6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반면, 설비투자지수(통계청)는 자동차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7% 하락하였다.

●● 고용

2013년 연간 고용률은 59.5%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2013년 연간 취업자는 2,506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38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년대비 18만 6천명(1.3%), 여자는 20만명(1.9%)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 연간 실업률은 3.1%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취업자 및 고용율

(단위 : 천명, %,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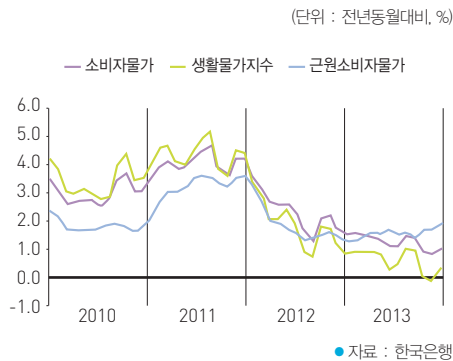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24,244	24,681	437	1.8	25,066	386	1.6
남자	14,153	14,387	234	1.7	14,573	186	1.3
여자	10,091	10,294	203	2.0	10,494	200	1.9
고용률	59.1	59.4	0.3p	-	59.5	0.1p	-
남자	70.5	70.8	0.3p	-	70.8	0.0p	-
여자	48.1	48.4	0.3p	-	48.8	0.4p	-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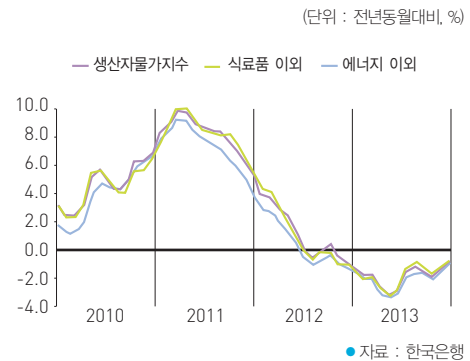
● ● 물가

소비자물가는 수요와 공급 측 모두 물가압력이 감소하여 2013년 3/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공급증가로 3/4분기 0.5% 감소하였으며, 이후 하락세를 유지 10월과 11월에도 5.4%, 3.7% 감소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 저하를 주도하였다. 생산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및 농림수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2012년 3분기 이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며 2013년 3/4분기 1.4% 감소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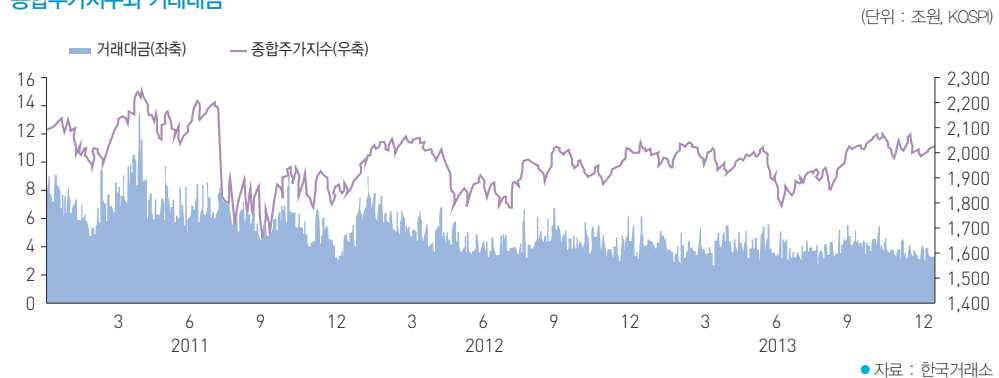


● ● 금융시장

2013년 금융시장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상반기에는 미 연준의 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 우려, 북핵 리스크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제기, 동양그룹의 신용사건 발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된 바 있었다.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들은 5월 기준금리의 인하에 따라 동반 하락한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중 2.4%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여 2013년말 2.8%로 상승하였다. 주식시장은 6~7월 중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7월말 이후 외국인 투자 유입 및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하여 KOSPI는 2013년 12월말 현재 2,011포인트로 전년동기(1,997p) 대비 소폭(약 0.7%) 상승하였다.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대금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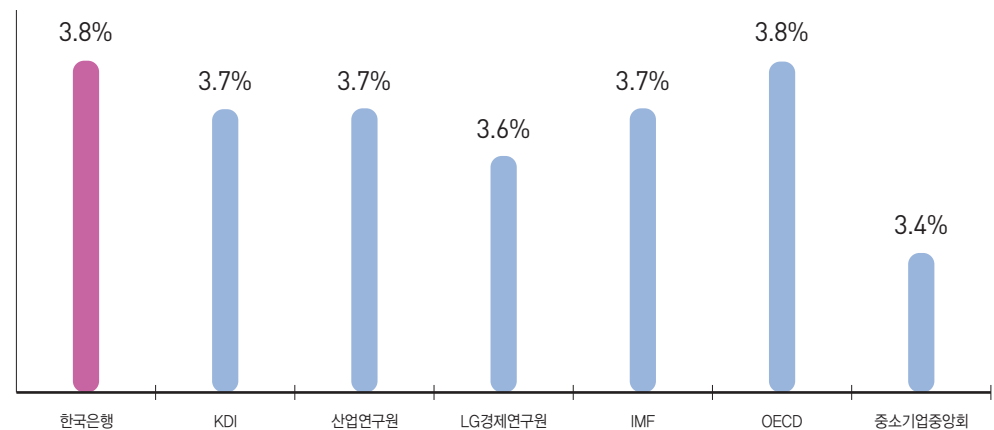


2014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소비 및 투자증가에 힘입어 성장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미 연준의 출구전략 모색, 중국경제의 성장속도 조절, 개발도상국 금융불안 등의 글로벌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2014년에는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수요심리 개선과 더불어 그간 선진국들의 부채축소 과정에서 미루어왔던 내구재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소비가 점차 개선되고 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내수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과거 경제회복기에 비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및 주요 연구기관들 역시 3%대 중후반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2년여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별 201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02

중소 · 벤처기업 동향

A hand is shown typing on a laptop keyboard. The imag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digital interface. On the left, a list includes: -INTERNET, -LIVE CHAT, -MEDIA, -PHOTOS, -VIDEOS, -MUSIC. In the center, there are labels for continents: EUROPE, AMERICA, ASIA, AFRICA, and PEOPLE FORUMS. On the right, a list includes: -VIDEO, -AUDIO, -PICTURES, -SEARCH, -MESSAGES, -EURO, -AMER, -ASIA, -AFRICA. The background is a blurred image of a laptop screen and keyboard.

TREND IN SMES & VENTURE BUSINESSES

2012년 이후 저성장 장기화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은 벤처·이노비즈·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은 물론 기술평가보증의 지속적인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종합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2009년 하반기부터 그간의 하강세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 생산지수 및 평균가동률이 증가하였다가 유로지역 경기부진 장기화, 주요국 재정위험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및 국내 내수회복의 지연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상승세가 완만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연간 신설법인수는 75,578개(2013년말기준)로 전년(74,162개)대비 1.9%(1,412개)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부도업체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악재로 인한 글로벌 신용위기 등으로 급등한 후 2009년부터 연속 감소세로 이는 우리경제에 대한 긍정적 경기전망 및 기업인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주요 지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산지수(%)	87.8	91.8	92.1	87.3	100.0	104.2	103.9	105.4
평균가동률(%)	70.4	71.0	64.1	70.9	72.0	72.1	70.3	72.3
신설법인수(개)	50,512	53,483	50,855	56,830	60,312	65,110	74,162	75,578
(월평균)	(4,209)	(4,457)	(4,238)	(4,736)	(5,026)	(5,426)	(6,180)	(6,298)
부도업체수(개)	2,529	2,301	2,735	1,998	1,570	1,359	1,228	1,001
(월평균)	(210)	(191)	(228)	(166)	(131)	(113)	(102)	(83)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3	0.03	0.02	0.02	0.02
중소기업수출액(억달러)	1,037	1,135	1,305	768	986	1,016	1,029	-
(전년대비증가율,%)	(12.6)	(9.5)	(15.0)	(△41.1)	(28.4)	(3.0)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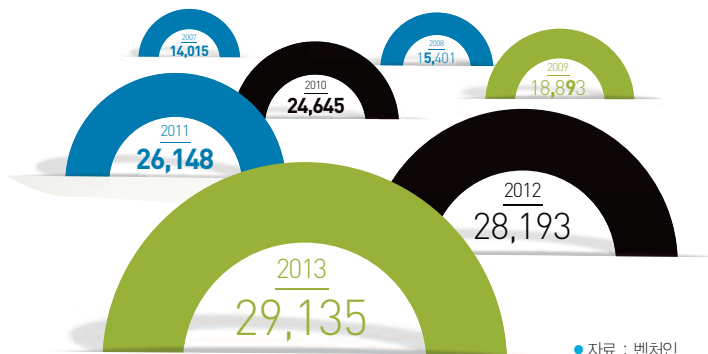
- 생산지수는 기준연도인 2010년을 100으로하여 작성됨
-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벤처확인이 최초로 시작된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 7월 처음으로 1만개를 돌파한 이후 IT산업 등의 경기침체 등으로 2002년부터는 감소하다가, 2004년 4월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2006년 6월 전면적인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 자금 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2008년에는 벤처기업 수가 1만5천개로 증가하였다.

2010년 4월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우량 중소기업은 보증이 필요없음에도 벤처확인을 위해서 기술평가보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보증금액이 아닌 기술평가보증가능 결정금액으로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기업 수는 2010년 5월 2만개를 돌파한 이후 2013년말에는 29,135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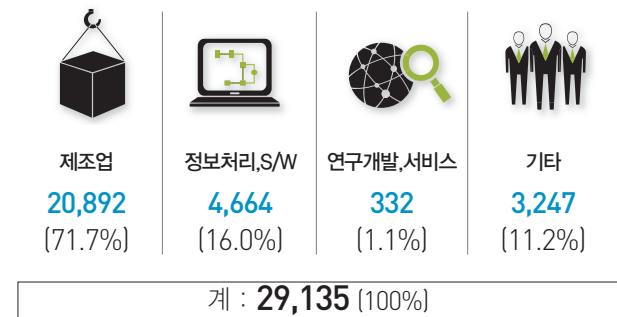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중심의 기술평가보증 위주의 보증지원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의 향상과 보증신청기업의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정책 수혜 등을 위한 인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벤처기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에 71.7%가 집중되어 있고, 그외 S/W업종에 16.0%가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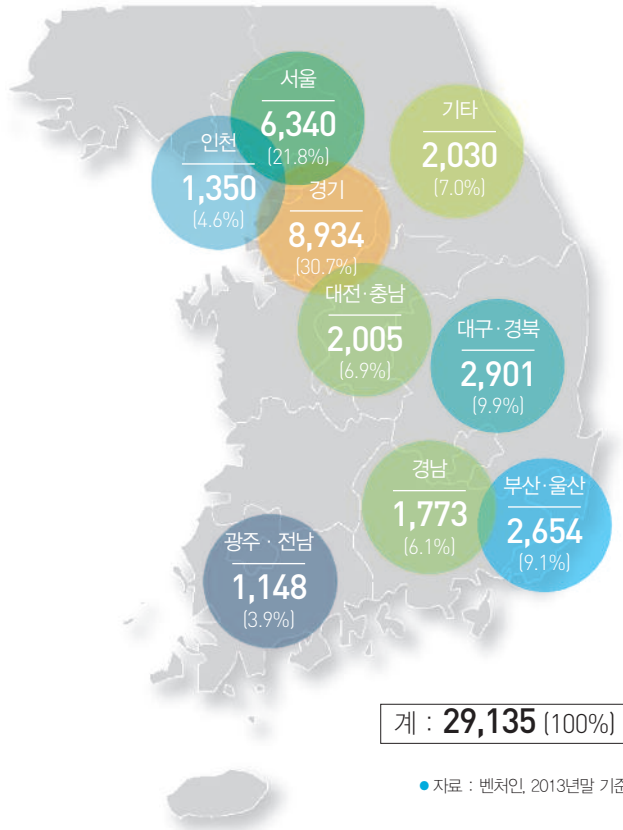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또한, 지역별로는 업체의 57.1%가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벤처기업은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 수가 2013년(2012년 결산 기준) 416개로 2012년 대비 9.2%(35개사) 증가하는 등 벤처산업의 성장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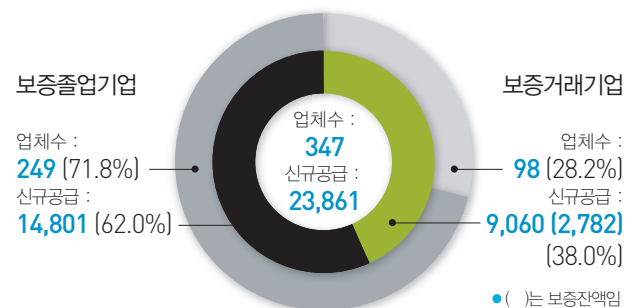
●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추이



2013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벤처천억기업 416개 중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347개 기업에 총 2조3,861억원의 신규보증 지원이 이루어져 이중 249개사(71.8%)는 보증 졸업했고, 98개사(28.2%)는 보증잔액 2,782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중 기업공개된 기업은 177개 업체로서 최초보증 취급 당시 26개 업체, 보증거래 기간중 128개 업체, 보증졸업 이후 23개사가 IPO에 성공하여 보증이용기간 중 성장·성숙 과정을 거쳐 IPO 기반을 마련했다.

● 벤처천억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앞으로도 기보는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기술금융 지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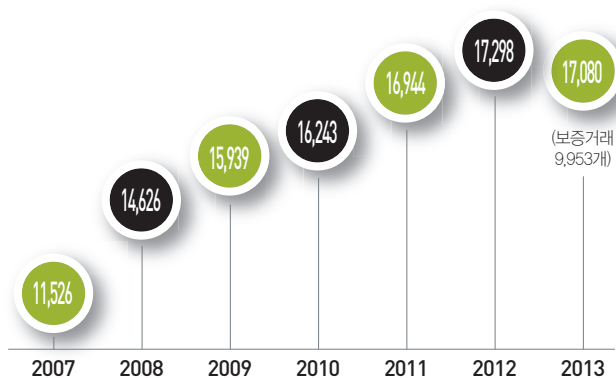
이노비즈기업



21세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 진전에 따른 국제적 기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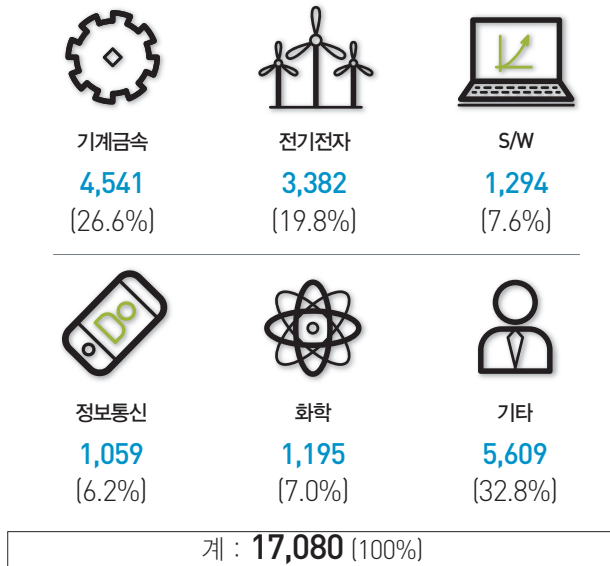
그 결과, 2013년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 중 17,080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정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청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도별 이노비즈기업 선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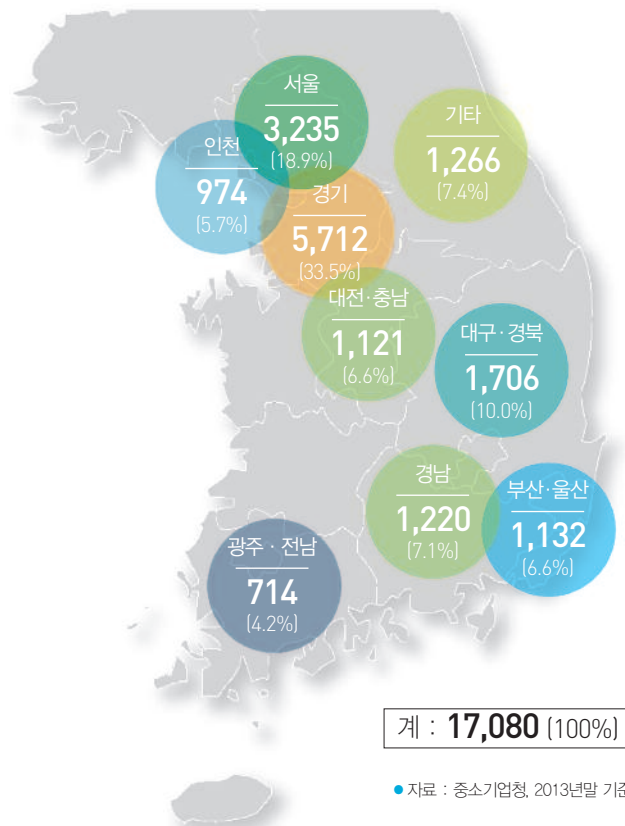
● 자료 : 중소기업청

업종별 분포



●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말 기준

지역별 분포



● 자료 : 중소기업청, 2013년말 기준



03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KOTEC'S
BUSINESS

개요

●● 역할

기보는 1989년 설립 이후 25여 년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총 23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재무구조는 취약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 지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R&D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적극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예비창업자가 창업 즉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과 융합추진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산업융합보증' 제도, 그리고 우수 지식재산의 창업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보증'의 개편 및 확대 등의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보는 기술·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위험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기 진작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지속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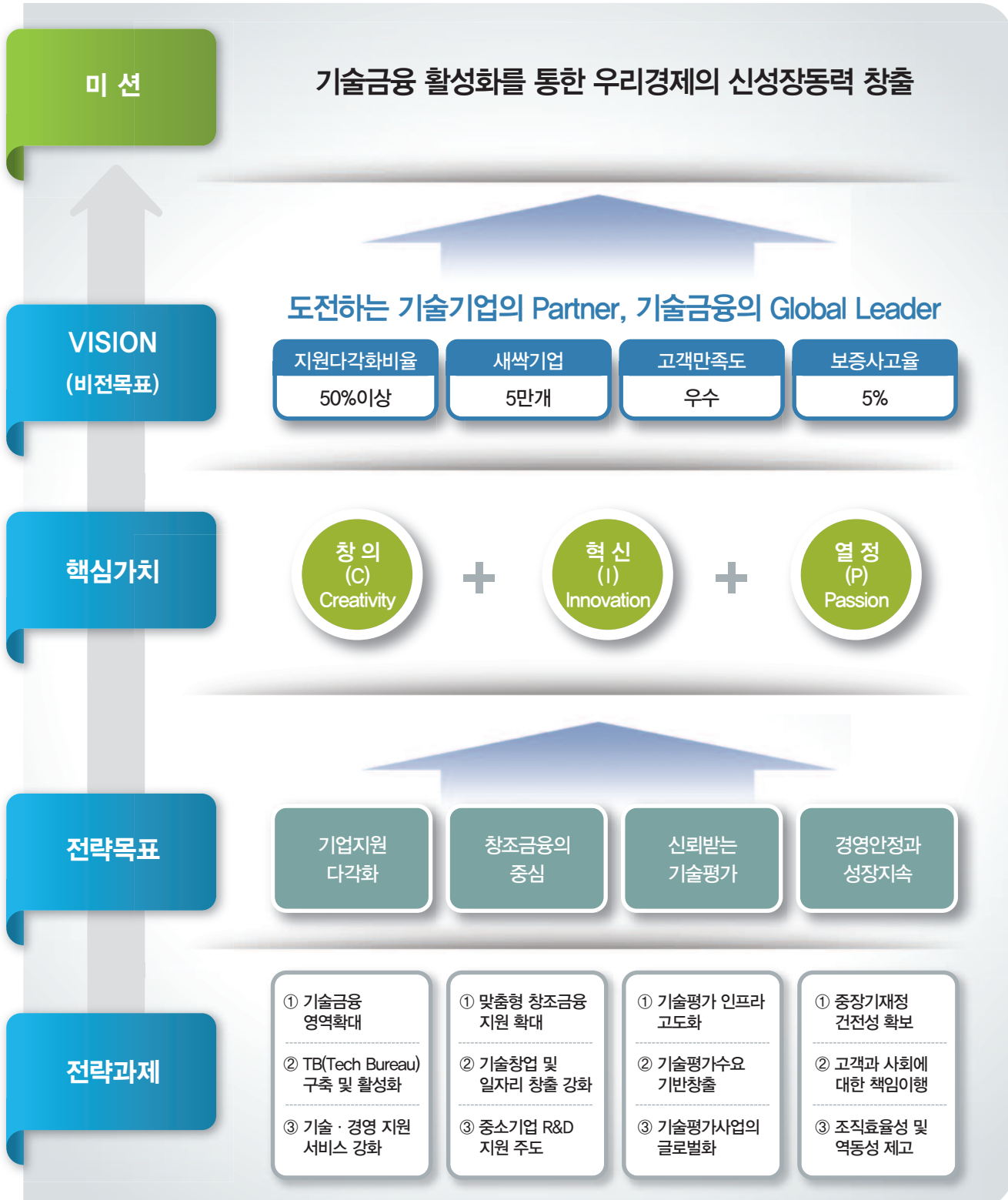
- ①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②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 주요 연혁

- 1989. 4. 기술보증기금 설립('86.12월 기금설치)
- 1994. 2. 기술우대보증제도 시행
- 1997. 3.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 1998. 11. '98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1999. 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 2002. 8. 기술평가 및 기술지도 업무 법제화
- 2004. 8. 총 보증지원 100조원 돌파
- 2005. 4. 중앙기술평가원 개원
- 2005. 7.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 2006. 5. "NEW CI" 제정
- 2006. 6. 벤처기업 확인기관 선정
- 2006. 10. '06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2007. 1. 보증프로세스를 기술평가보증으로 일원화
- 2007. 4. 기술평가시스템(KTRS) 국내특허 취득
- 2007. 6. '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1위
- 2008. 1. 전 지점을 기술평가센터로 전환
- 2011. 5. 부산 문현국제금융단지 본점 입주
- 2011. 12. 총 보증지원 200조원 돌파
- 2012. 06. 보증연계투자를 기금 고유업무로 하는 기금법 개정 시행
- 2013. 10. '2013 신재생에너지대상(공생발전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 2013. 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8년 연속 우수)
- 2013. 12. 누적보증공급액 230조원, 보증규모 19조원, 거래기업수 6만개 돌파

비전 및 전략

● 중장기 비전과 경영전략 체계



일반현황

기본재산과 운용배수

기보는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기본재산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경제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재원으로써 자본금인 동시에 대위변제에 응당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의 성격이며,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기보에 출연(2012년에는 일반회계로 1,500억원 전출, 2013년 600억원 전입)하는 것으로, 기술·창업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다.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기술보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및 신용도 파악에 필요한 취급비용을 절감하고 자금공급에 수반되는 위험을 제거하며 향후 채무상환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보증이용의 대가적 성격과 기술중소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를 기보로부터 대위변제받는 기술보증에 대한 일종의 부담금 성격이다. 금융기관은 출연기준 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1.35±차등요율,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분기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3을 출연하고 있으며, 별도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도 특별출연하고 있다.

기보의 기본재산은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 여력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공신력 확보 등 지속적인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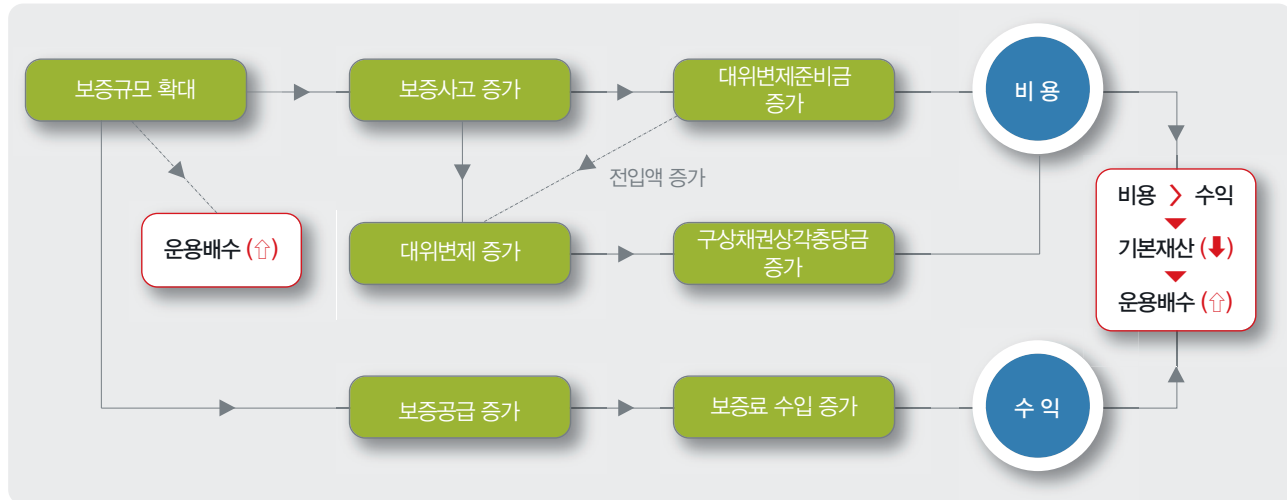


증지원을 위한 재산적 기초로써, 출연에 의해 조성되는 기본재산 및 보증료, 손해금, 예치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이익금은 먼저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보의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응당하고, 여유금은 금융회사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기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

2013년도는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와 사고율 안정화 및 민간출연금 유입 등으로 재정건전성 유지하였으나, 보증회계준칙의 제정·시행으로 '11년 이후 전체 보증잔액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함에 따라 기본재산은 전년말 대비 1,653억원 감소한 23,784억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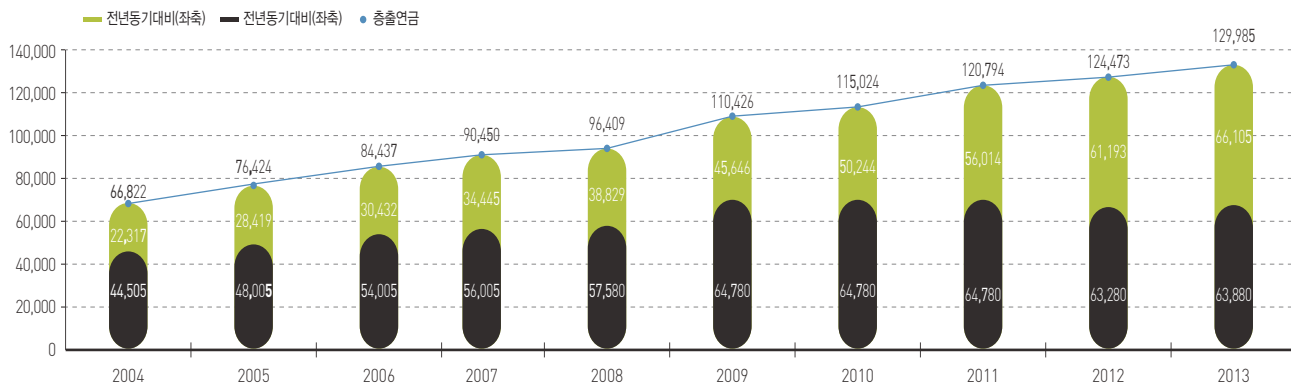
운용배수는 일정시점에서의 기술보증규모를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된 값(배)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정부정책 및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여력 등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보증규모, 사고율 및 대위변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운용배수는 보증제도의 최대장점인 승수효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증운용의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8.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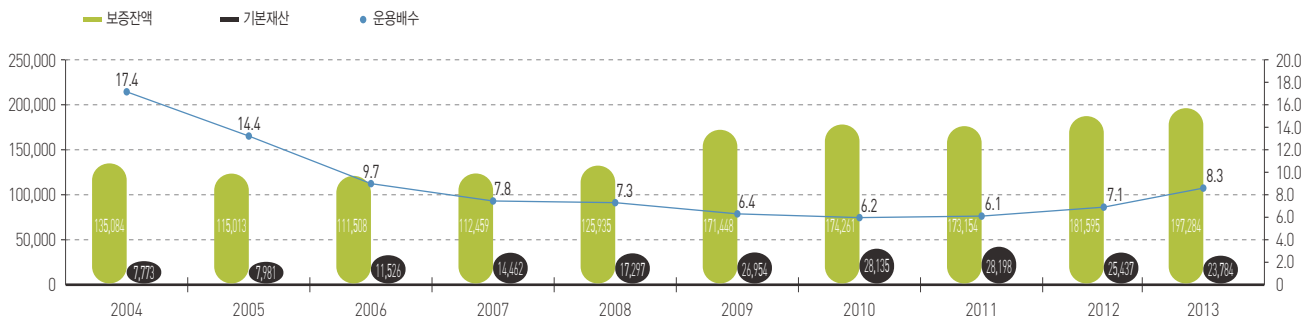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출연금 누계액 현황

(단위 : 억원)



최근 10년간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배)



조직 및 인원

본부부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업무 효율화 및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창조 경제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일부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본부 조직개편 : '12년 7부 3실 2부속실 → '13년 11부 2실 4부속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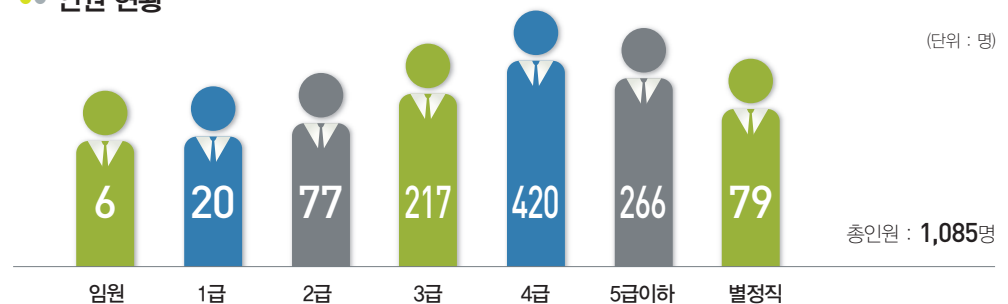
영업조직은 R&D 및 창업지원이 강화되도록 중앙기술평가원을 통합·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창업의 Hub 역할을 하는 10개 본부평가센터와 Spoke 기능의 42개 기술평가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 현황



2013년말 현재 기보의 조직은 본부(11부 2실) 및 영업점(중앙기술평가원 1개, 본부평가센터 10개, 지역기술평가센터 42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임원 6명, 별정직 79명 등을 포함하여 총 1,0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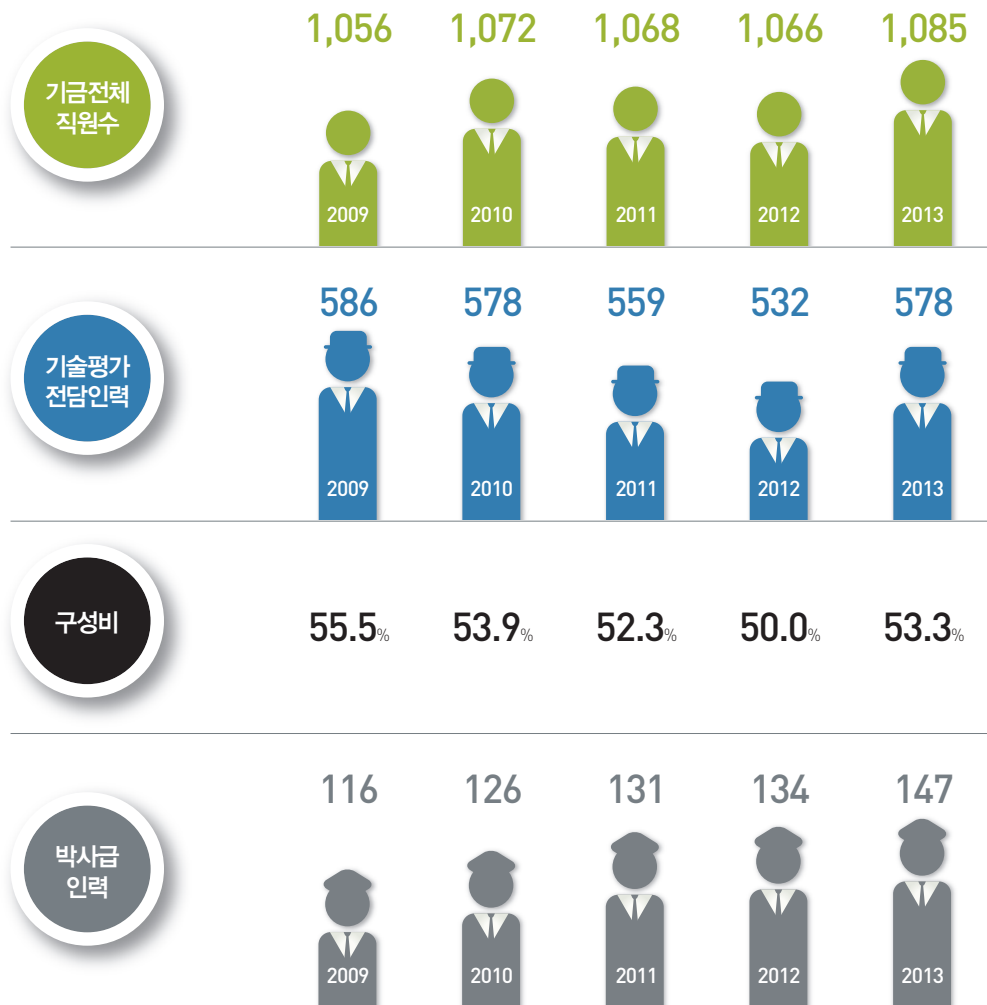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평가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기술평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술평가사 등 578명의 기술평가 전담인력(박사급인력 147명)을 확보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평가사 및 박사급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 기술평가 관련 인력변동 추이

(단위 : 명)



● 주) 박사급인력에는 기술평가사 1급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업무 등

기보의 주요 업무는 핵심업무인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업무와 부수업무인 경영지도 및 기업지도, 기술혁신지원 업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업무

핵심업무

기술 보증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중소기업이 창업, R&D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일반보증 신규지원 중단 ('04.8월)

기술창업보증 설립후 5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혁신형보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녹색,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 기업 등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보증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 평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융자 등 다양한 목적의 기술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

기술가치평가 당해 기술에 의해 실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실현될 가치를 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연계 투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 지원

– 주식인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구상권 관리

보증부실발생시점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구상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관리

– 채권보전,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 및 임의상환 유도 등

부수업무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기술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경영 및 기술진단, 기술자문, 창업교육, 창업강좌 및 연수, 판로개척, 멘토링제도,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M&A 등

기술혁신 지원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선정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

기보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며, 특히 벤처·이노비즈기업, 창업초기기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을 기보의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기술금융을 우대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중점지원부문으로 설정하여 부문별 목표(Quota)를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이들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있다.

● 핵심 고객

-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고위험과 고수익성이 수반되는 **벤처기업**
-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이노비즈기업**
-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창업초기기업
-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R&D기업
-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미래성장 유망업종 (6T)**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 벤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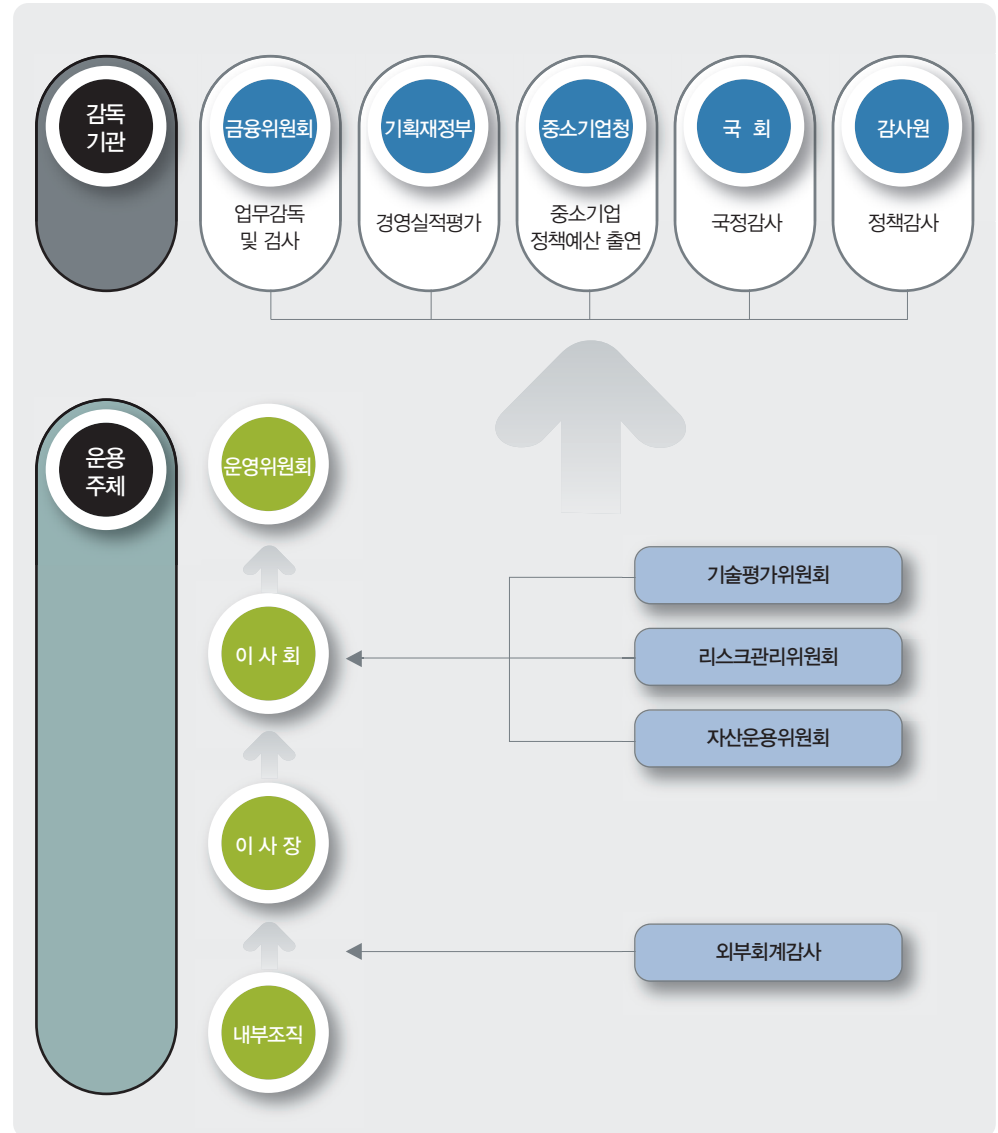
-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유형
 -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 연구개발기업
 - 벤처투자기업

● 이노비즈기업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업 요건
 - 설립 후 3년 이상으로 기술혁신시스템 평점이 700점 이상이고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기보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국회법 등 기본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 의사결정 및 관리감독 체계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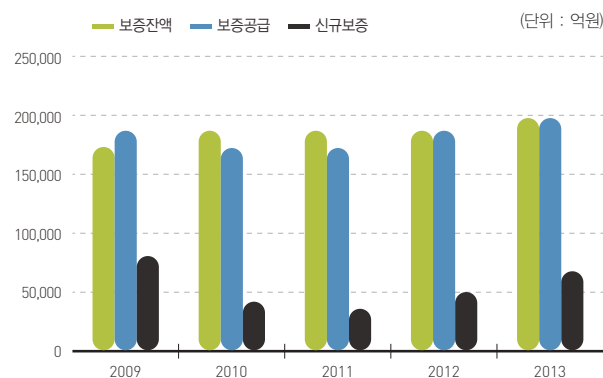
총괄

2013년 세계 및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 속에 신흥시장의 성장모멘텀 약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보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냈다. 특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부문을 집중 지원하였고, 기술평가인프라를 확충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민간 금융시장에서도 기술력 중심의 신용대출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상권 회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였다.

● 기술보증

기보는 설립 이후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3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공급하여 기술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2009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기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2013년도의 총보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1조 5천억원 증가한 19.7조원을 유지하였다.

기술보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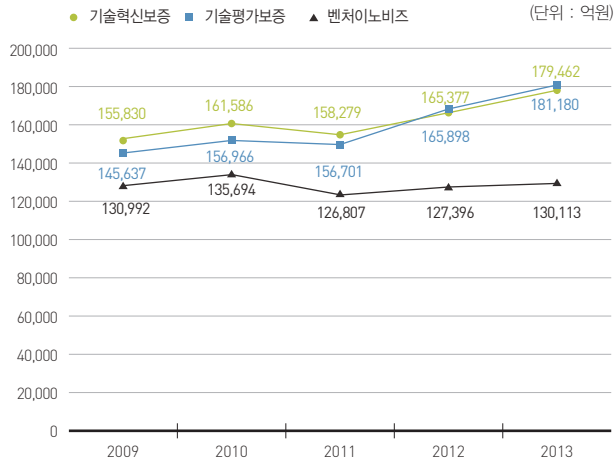


2005년 6월 이후 보증총량 위주의 양적확대에서 탈피하여 리스크는 높으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기술혁신기업으로 보증대상 기업을 특화하였으며,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통해 과거 재무실적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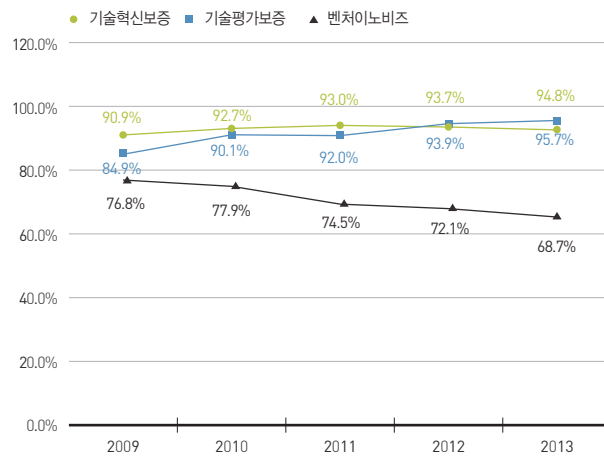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증잔액	171,448	174,261	173,154	181,595	197,284
보증공급	175,713	169,336	169,173	180,775	196,591
신규보증	81,979	42,860	41,396	52,354	60,184

기술보증 현황

(보증규모)



(보증비중의 변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3대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였으며, 창업초기·기술벤처에 대한 432억원의 투자 지원을 통해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체 신용으로는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운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으로 유동화회사보증 3,052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계획	실적
기술창업기업	34,295	76,244	72,000	87,142
신성장동력산업	9,491	44,921	45,000	57,742
R&D활성화	6,063	16,340	20,000	24,022

● 기술창업기업

창업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

● 신성장동력산업

정부확정 3대 분야 17개 산업의 대표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R&D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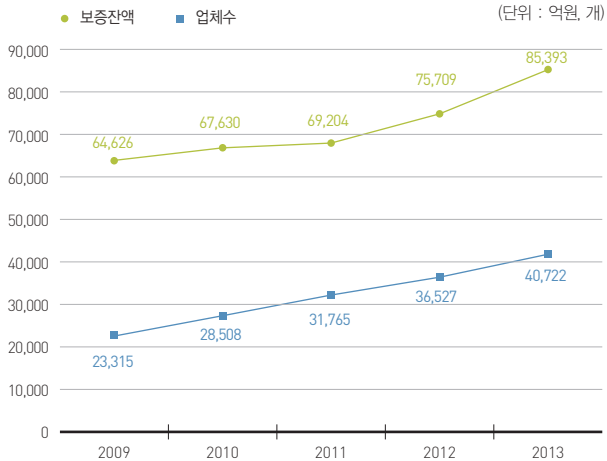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청기술 및 자금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특히,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 6.5조원이었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2013년말에는 1.3배 가량 증가한 8.5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총보증 대비 기술창업기업 보증잔액 구성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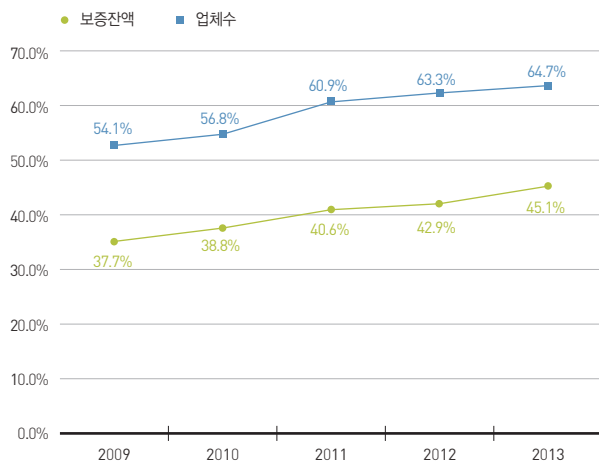


기술창업기업 보증현황

(보증잔액 및 업체수)



(구성비)



● 기술평가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 활동이다.

기보는 1997년 3월 최초로 기술평가를 시행한 이후 매년 평가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까지 총 407,156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고, 기술평가료 누적 수입금액은 2,24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기보 기술평가 시스템의 활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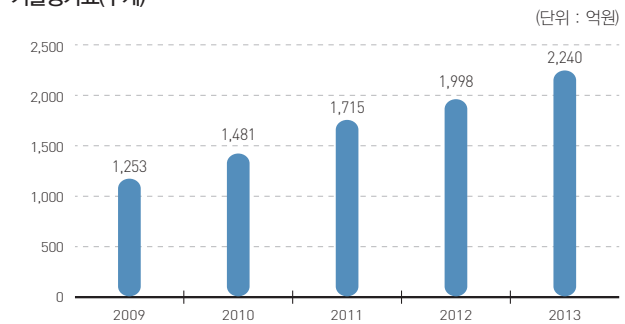


기술평가 현황

기술평가건수(누계)



기술평가료(누계)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술평가 건수	54,482	39,968	40,702	45,702	45,414
누 계	235,370	275,338	316,040	361,742	407,156
기술평가료	270	228	235	283	242
누 계	1,253	1,481	1,715	1,998	2,240

●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사후관리와 구조개선 및 실패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증자산의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율은 2004년 12.9%의 고점을 찍은 후 2006년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되어 2013년 사고율은 4.0%를 기록하였다.

사고순증금액 및 사고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고순증금액	17,449	11,659	6,791	6,050	7,679	7,420	8,184	8,715	9,026	7,791
사고율	12.9	10.1	6.1	5.4	6.1	4.3	4.7	5.0	5.0	4.0

정부의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반영하여 실패예방과 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파산신청 등 채무면책 증가, 연대보증인 축소 등으로 구상권 회수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구상권 회수자원 발굴노력 강화, 회수가능성 위주 채무자별 차별화전략 및 공공기관보유 정보활용의 정례화 등을 시행하고, 다양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구상권 회수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장기미회수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상각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의 재지원을 도모하였다.

연도별 구상권 회수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구상채권잔액	16,694	16,982	18,042	19,641	18,594
구상권 회수	3,197	2,534	3,222	3,150	2,416

* '13년 회수실적에서 회생보증으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



기술보증

총보증지원

● 기술보증지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재도약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보는 기술금융 전문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기술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기술금융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일자리창출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9조 3,539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규모는 19조 7,284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5,689억원 확대되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일자리창출기업,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총보증공급 대비 비중이 2012년보다 1.1%p 증가한 94.9%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간접시장에 편중된 중소기업 대출을 직접금융시장으로 확대한 우수기술 유동화보증 또한 신성장기업 중심으로 3,052억원 규모로 발행하였다.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 체계 강화

기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창업 및 벤처기업에 보증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신규공급이 증가하였고 특히 정부에서 중점 추진중인 일자리창출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비중	2012	비중	2013	비중
총보증공급	166,271	100.0	178,588	100.0	193,539	100.0
기술혁신기업	154,808	93.1	167,512	93.8	183,727	94.9
벤처기업	109,895	66.1	111,459	62.4	115,860	59.9
이노비즈기업	85,102	51.2	83,730	46.9	78,123	40.4
창업기업	66,527	40.0	76,244	42.7	87,142	45.0
기술평가보증	151,914	91.4	167,008	93.5	184,625	95.4
지식문화산업	22,514	13.5	25,402	14.2	30,843	15.9
일자리창출기업	25,455	15.3	37,301	20.9	44,887	23.2
신성장동력산업	34,295	20.6	44,921	25.2	57,742	29.8
유동화회사보증	2,902	1.75	2,187	1.2	3,052	1.6
총보증잔액	173,154	-	181,595	-	197,284	-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13년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18조 3,727억원으로 2012년 16조 7,512억원 대비 1조 6,215억원 증가하였고,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도 94.9%로 2012년도 93.8%보다 1.1%p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벤처 · 이노비즈기업 보증

벤처 · 이노비즈기업 전담지원 기관인 기보는 2013년도 벤처기업에 11조 5,860억원을, 이노비즈기업에 7조 8,123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2013년도 벤처 ·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보증중 벤처기업의 경우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은 59.9%로 2012년도 62.4%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등의 지원강화로 2012년도 대비 지원금액은 4,401억원 증가하였다.

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창업 분위기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신기술사업자로서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및 보증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1년에는 6조 6,527억원(40.0%), 2012년에는 7조 6,244억원(42.7%), 2013년에는 8조 7,142억원(45.0%)을 지원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술평가보증

기술금융의 핵심으로서 기보는 기술혁신기업 금융지원에 최적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으로 전년도 16조 7,008억원(93.5%) 대비 1조 7,617억원(10.5%p) 증가한 18조 4,625억원(95.4%)을 지원하는 등 기술평가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창출강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을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3대분야, 17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보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하여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선도하게 되었다. 또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3대 분야 17개 산업)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 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 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 ·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 · 소프트웨어, MICE* · 융합관광
	* Meetings(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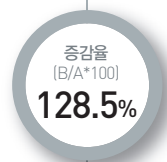
신성장동력산업 보증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정부는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대책”(2012.5월)에서 기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3년간(2011~2013년) 10조원 규모의 신규보증 공급계획을 11.7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확정하고 기술력 중심의 녹색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한 녹색기술평가 기반을 보유한 기금에 녹색산업발전 수행의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보증이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녹색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창출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신성장산업 특별보증(2013.1월)을 시행하는 등 ‘13년중 녹색산업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해서 12,166개 업체에 5조 7,742억원을 집중지원하였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견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상생펀드(대기업·발전회사(18), 시중은행(3), 관련협회(3) 공동 조성) 추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2013년 중 105개 업체에 734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기금에 상생보증 추천권을 부여토록 제도 개선(2012.9월) 이후 기금에서 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추천하여 상생보증 지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보증 공급 실적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보증 공급 실적





녹색기술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의한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차별화된 보증상품을 운용하여, 녹색기술 수준별로 차별화된 「GREEN HI-TECH 특례보증」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녹색인증기업 및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지원으로 2013년 중 140개 업체에 976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녹색기술력 한도를 가산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0.5%p까지 감면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금융 수요자 발굴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였다.

| GREEN HI-TECH 특례보증 주요내용

구분	녹색인증기업 특례보증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특례보증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기술력판별표 충족기업 (기술사업평가 등급 BB이상)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기술력 한도가산 :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산업재산권 등록비, 인력채용에 대해 특별 한도로 추가 지원 보증한도 : 최대 70억원 이내 보증료 : 0.5%p감면 보증비율 : 90% 기술사업내용 작성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한도 : 최대 70억원 이내 보증료 : 0.3%p감면 보증비율 : 85% 전문인력 기업전담 Supporter 운영
지원 실적	'13년 : 140개 기업, 976억원	

●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분위기 조성



창업단계별 체계적인 창업지원제도 운영

예비(초기)창업자가 창업단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보증기금 인력을 멘토로 선정하여 창업관련 정보 제공 등 경영전반에 대한 멘토링 지원과 창업시 최소한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조달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보증지원을 결합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3년에는 1,574건의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726개 기업에 656억원의 창업멘토링 특례보증을 지원하였다.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 지원 확대

미래성장 기반 조성 및 고용없는 성장 극복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유형에 따라 '녹색성장창업,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채린저창업, 40·50 창업, 1인창조기업, 첨단·뿌리산업' 등 6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하는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10,168개 창업기업에 23,720억원을 지원하였고, 소액 창업기업 위주로 기술보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후 2년 이내 새싹기업, 청년창업기업, 매출액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창업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총 12,080개 창업기업에 29,438억원(전체 신규공급 57,132억원의 51.5%)을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 평가로 기술창업기업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기술·아이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해 주고, 창업즉시 창업전에 제시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를 도입하여 '13년 예비창업자 421명에게 533억원의 창업보증 지원을 결정해 주고, 이 중 창업을 한 305개 기업에 359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산업 지원 확대

지식문화산업 보증지원 확대

지식·정보화시대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보는 Post-제조업 성장엔진으로서 지식집약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금융으로 흡수 가능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부문”을 중점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지식문화산업 보증잔액 비중을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신성장 지식문화 관련업종을 기술금융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능동적 제도개선 및 지속적 보증지원 확대 노력을 경주하여 2013년 보증잔액 비중은 15.5%(계획 14.0%) 수준을 달성하였다.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

새로운 사업영역인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원교육훈련, 산업특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현업 적용도 및 기술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교육서비스 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하는 등 지식문화산업 관련 기술평가모형 세분화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제고 및 기술평가 전문성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식문화산업 평가모형



또한,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는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식문화산업 영위기업의 용역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간의 고질적인 금융갭(gap) 해소 및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사업수행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를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확대

문화콘텐츠 제작지원과 투자유인을 위해 2009년 9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제를 도입한 이후, 고객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산업완성보증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콘텐츠(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융합CG)에 대한 제작비 지원한도를 확대하였고, 제작역량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상환조건을 면제하고 수익금을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완성보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시행 이후 SBS에서 방영된 뿌리깊은나무, MBC에서 방영된 빛과그림자, 불의여신 정이, KBS에 방영된 왕가네 식구들 및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 등 120개 문화콘텐츠에 1,223억원의 제작자금을 지원하였다.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현황 <누적>



● 공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보증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 기술혁신기업에 효과적으로 기술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대기업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동반성장 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에 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최초로 시행된 후, 2011년 상반기에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기관과 2차 협약, 2013년 상반기에 국민은행과 3차 협약 체결하여 확대·시행중이며, 기술창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2013년 상반기 국민은행과 예비창업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등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특별출연금	1,893	60	880	289	50	3,172
보증지원	18,701	3,758	10,447	4,102	1,387	38,395

●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2011년 상반기에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2차)」와 함께 시행된 제도로써, 보증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합계
보증료지원금	80.0	277.5	68.5	212	638.0
보증료지원	-	99.2	213.4	274.7	587.3
보증지원	-	15,788	32,526	39,319	87,633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대·중소 상생보증」은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 현대자동차 등 3개 대기업 및 2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삼성전자 등 9개 대기업 및 3개 금융기관으로 협약을 확대·시행중인 제도로써, 협약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특별출연금	124.5	1.6	3.2	7.2	28.5	165.0
보증지원	1,967	19	58	318	352	2,714



● 고객중심의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대출중개마당(기업과 은행 간 금리 및 대출조건 등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상 공간) 개선을 통해 실수요 기업을 위한 실질적 중개 방안을 모색하고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기업은 다양한 금융정보를 통해 최적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여 금리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은행은 대출상품 홍보와 고객유치에 활용이 가능하다.

기업이 보증기한 연장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기한연장센터의 녹취시스템을 활용하여 무방문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편의를 증대시켰고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제경영자 1인만을 입보하게 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하고 창업활성화 등 금융환경 혁신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로 4대보험 전체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기보에서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직접 수집이 가능하게 하여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고객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세무증명서를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를 신설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향상 및 영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보증부대출금리 상시모니터링 및 대출중개마당 개선을 통한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보증부대출의 보증약관을 개정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증부대출금리 공시시스템인 금리알리미 제공 및 기업이 금리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은행 선택권을 강화하여 은행간 경쟁을 통한 자율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대출중개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 하였으며, 보증서대출 금리인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대출중개마당내 대출금리 비교 기능 추가 및 유익한 금리인하정보 안내를 신설하여 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증부대출 금리의 과도부과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자체적으로 비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금리 기준을 마련하고 금감원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기보) 고금리 보증부 대출건은 채권은행에 소명 요청, 금감원에 점검요청 -(금감원) 은행 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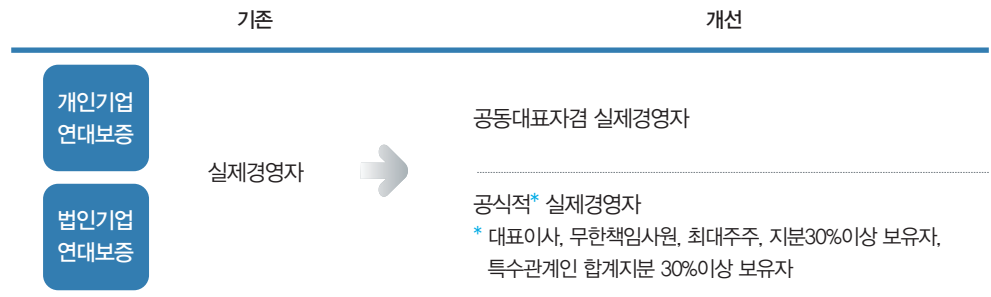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출중개마당 부가서비스 확대

기존	개선
<div>금리통계 정보</div> <div>(미구축)</div>	금융기관별 금리비교정보 제공
<div>이용대상</div> <div>보증기업</div>	보증기업 및 비보증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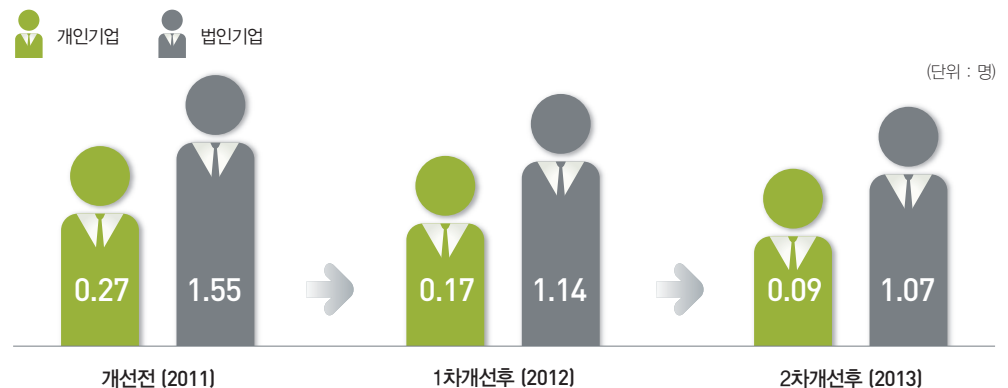
금리 뿐만 아니라 10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최초거래기업이 0.5%(또는 0.1%)의 고정보증료율만 부담하고 초과보증료는 은행의 출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 연대보증제도 개선

창업 활성화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2012.5월)하여 개인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는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바, 지하경제 양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대폭 개선(2013.7월)하여 비공식적 실제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가 제도개선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다. 이와 함께 제도시행 이전의 보증에 대해서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새로운 입보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수



기술평가

● 기술평가 개요

기술평가 개념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 유형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운용된다.

평가구분	정 의
기술가치 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 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평가의 범위

기술평가 범위는 평가대상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기술 성	시 장 성	사 업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의 개요 국내외 기술동향 기술개발환경 기술수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규모 및 특성 동업계 현황 시장수요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전망 가격과 품질경쟁력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 기술평가사업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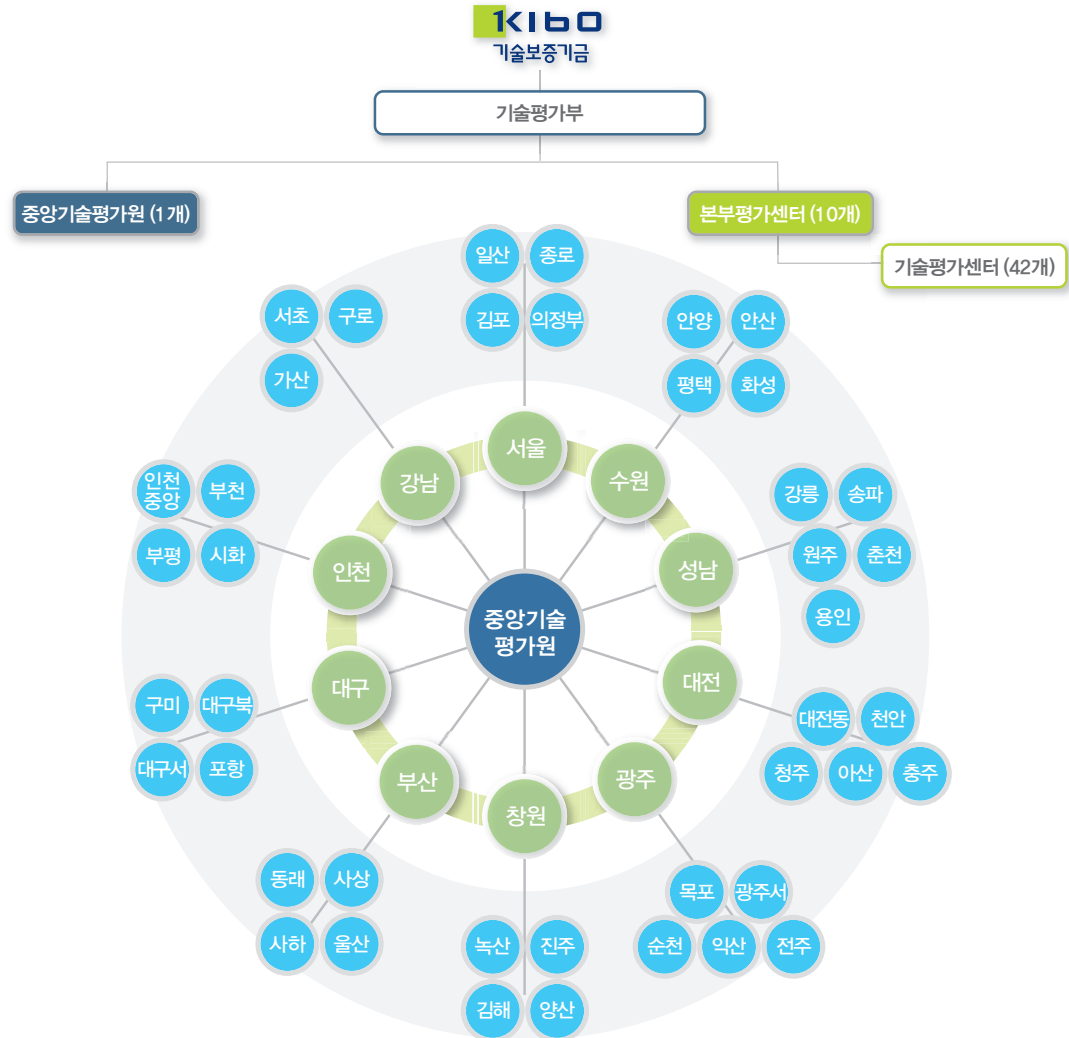
사업경과

기보는 1997년 2월 국내최초로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평가업무를 도입한 이후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新기술평가 시스템(KTRS) 개발, 벤처기업 확인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기술 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97. 3월 • 기술평가센터 개소
- '97. 5월 • 특허기술의 기술성 · 사업성 평가기관(발명진흥법)
- '97. 10월 •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가액 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98. 8월 •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98. 11월 • 외국인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외국인투자촉진법)
- '99. 2월 •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 '01. 4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평가 · 기술거래 전문기관(기술이전촉진법)
- '01. 7월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심사참고용 기술평가기관(한국증권업협회)
- '01. 8월 •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중소기업청)
- '04. 9월 • 기술평가인증제도(대내용) 시행
- '05. 7월 • 신(新)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 '07. 4월 • 기술평가모형 KTRS 국내 BM특허 취득
- '08. 4월 • 기술평가모형 KTRS 국제특허(PCT)의 개별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록 출원
- '09. 10월 • 창업기업용 기술평가모형(KTRS-Startup) 국내특허 취득
- '10. 4월 • 정부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 '10. 10월 • KTRS피드백 시스템 국내특허 취득(2건)
- '11. 1월 • KTRS 고도화 연구용역결과 적용 · 시행(KTRS-V2.0)
- '12. 11월 • 녹색기술 · 산업 특성에 차별화된 녹색기술평가모형(GTRS) 개발
- '13. 12월 • KTRS계열모형 개선 및 체계 재정립(연구용역결과 적용)

기술평가 조직 및 인력

증대되는 평가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3년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본부평가센터 10개, 기술평가센터 42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구분	역할	주요업무
중앙기술평가원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 • 정부 및 유관기관 마케팅업무 • 기술평가센터 지원 등
본부평가센터	지역별 기술평가 H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IP)보증, R&D보증 • 정부R&D과제 경제성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지역내 기술평가센터 지원 등
기술평가센터	지역내 SPOK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형화된 기술평가업무 • 보증용 기술평가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금전체직원수	1,066	1,056	1,072	1,068	1,066	1,085
기술평가전담인력	568	586	578	559	532	578
박사급 인력	109	116	126	131	134	147

*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3급이상 자격자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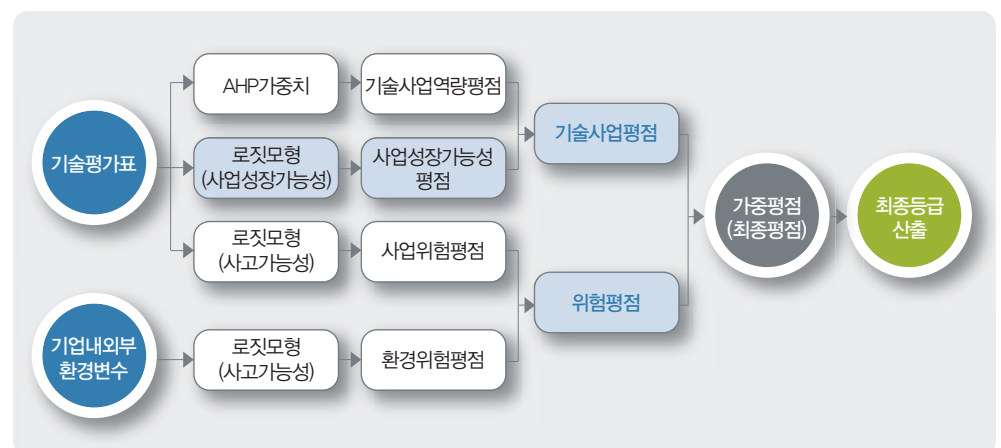
(단위 : 명)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학	섬유	생명(BIO)	환경	재무회계	특허법률	문화콘텐츠	기타
173	129	132	89	83	13	97	36	156	48	52	66
계 : 1,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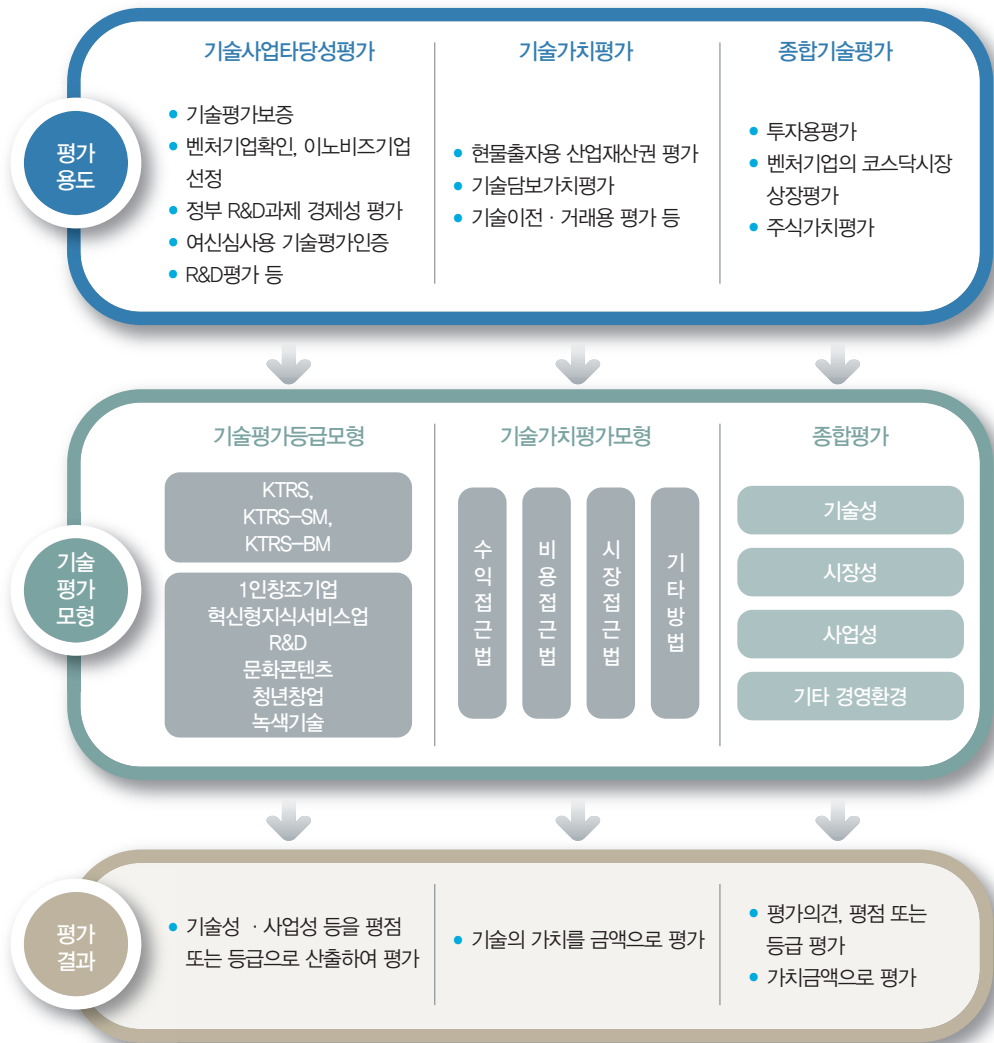
기술평가 시스템

기보는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등급화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다.

KTRS는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2005년 7월 기금 업무에 전면 도입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으로 사고율 및 리스크 예측치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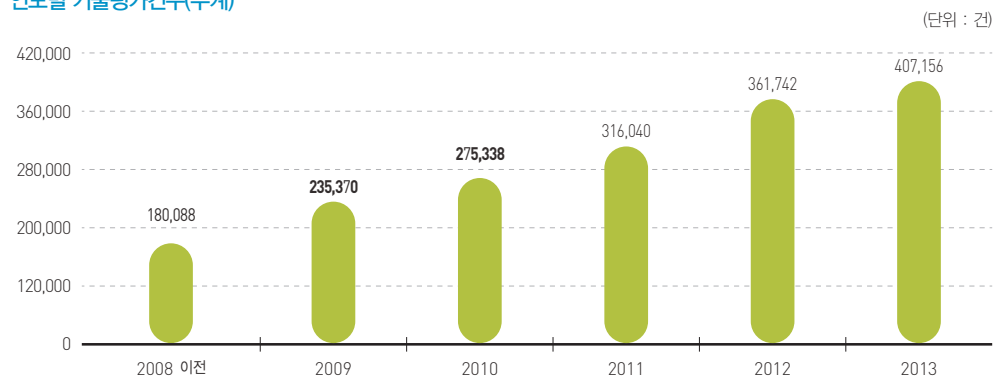
또한,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기술평가 수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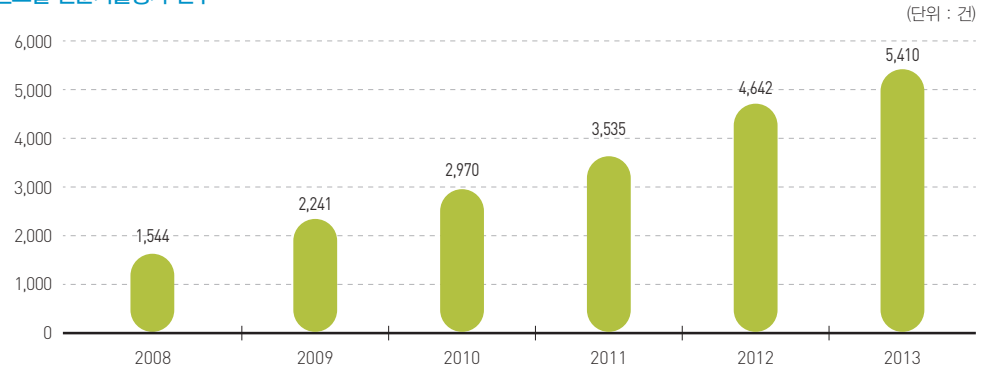
1997년 2월 기술평가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3년말 현재까지 총 407천여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도별 기술평가건수(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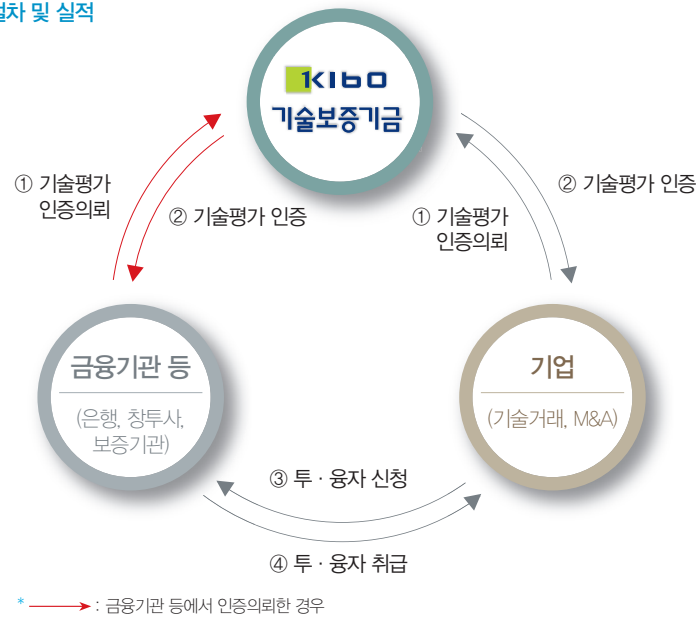
특히, 기술평가중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평가'와 '건당 평가료가 2백만원 이상인 민간부문 기술평가'는 일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평가로서 국내 기술평가 시장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



그리고, 2005. 2월부터 기보는 내부 보증용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대출, 투·융자, 기술거래 활용토록 '기술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을 기술·신용위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술평가 인증절차 및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공건수	881	1,200	1,180	2,017	2,575	3,354
T/F사업	692	769	801	643	732	608

● 주) T/F사업 :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평가수수료 보조사업)

한편, 기술평가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기술평가료는 평가인력, 평가기간, 평가범위 또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기술평가 활용과 민간부문 수요로 매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운영 방침, 고객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료 인하 등에 따라 기술평가료 수입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평가료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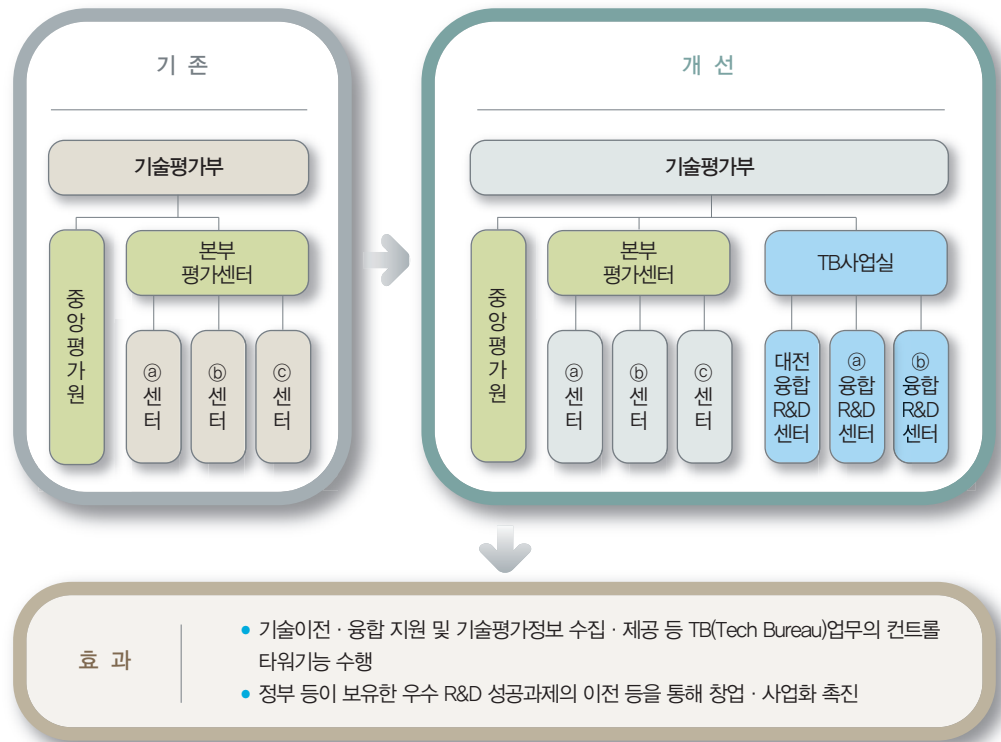


● '13년 기술평가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기술평가 조직 · 인력의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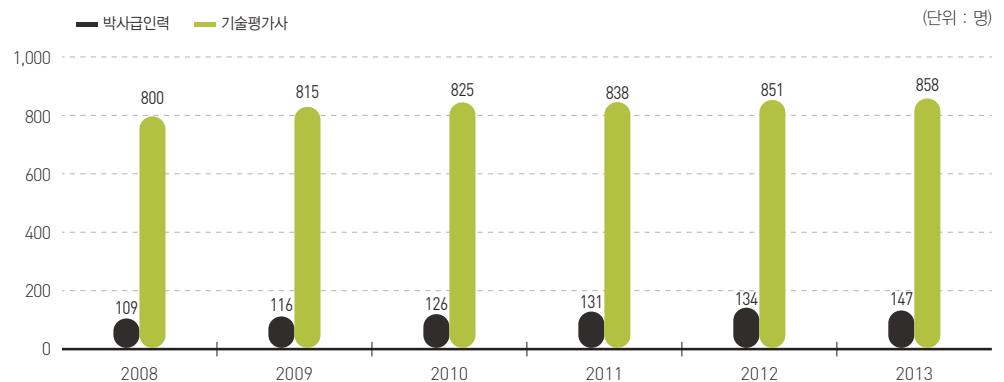
창조금융 확산을 위한 기술평가 조직 · 인력 운용체계 재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술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이전 · 융합 등의 창조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Hub조직인 TB사업실을 신설하여 기술평가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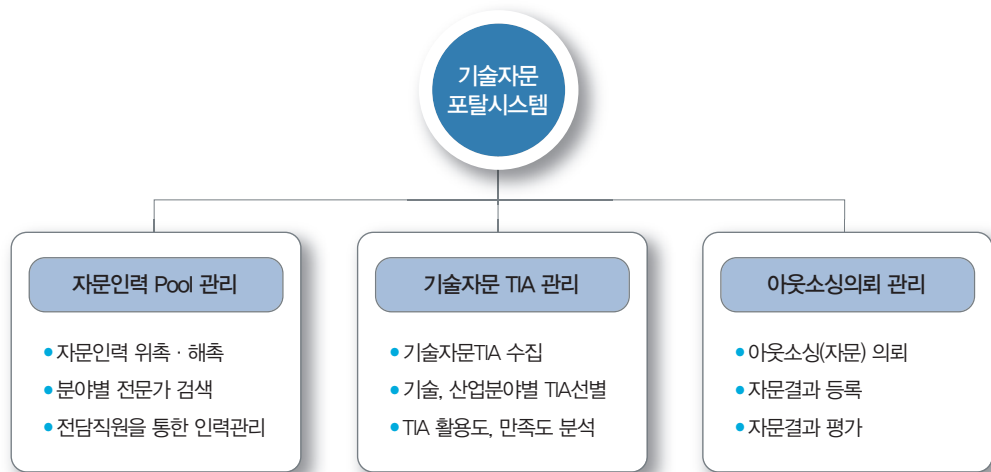
또한, 기보가 창조금융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및 기술평가사 1급 양성을 통해 전문 평가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중앙평가원 및 본부평가센터에만 배치하던 박사급 인력을 전략적 거점지역 영업점까지 확대 배치하였다.

기술평가 내부인력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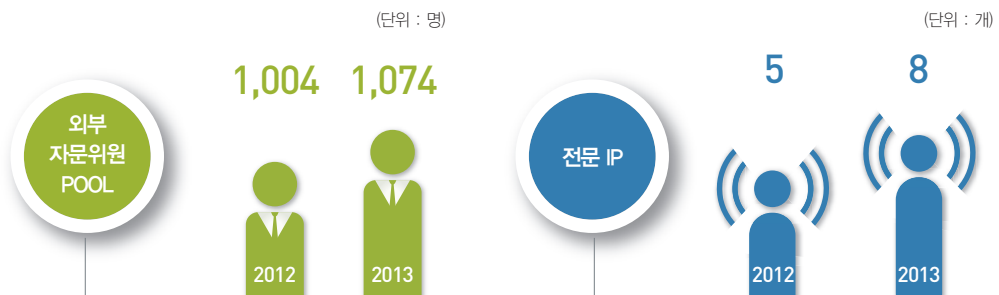
외부자문 네트워크 확충 및 효율화

신기술 출현이 잦고 기술의 진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외부자문위원 관리·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자문포탈시스템 구축하여 다양한 평가수요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평가서의 질적수준 향상 및 체계화된 평가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일회계법인, 특허법인 다래 등 17개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평가에 적극 활용되고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써 최신 기술 및 산업동향에 대한 한발 빠른 대응을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POOL 확충과 함께 전문 IP(Information Provider)의 가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기술자문 네트워크 정비확충 현황



기술평가시스템의 신뢰성 강화

기술평가모형 고도화 및 新평가기법 개발

기술평가등급모형은 평가 목적과 용도에 따라 크게 KTRS계열, 정책목적용 모형으로 구분되며, 소규모 영세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단일업종 모형이던 KTRS-BM을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총 9개 모형, 52개 분야의 기술평가모형 구축을 통해 평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였고, KTRS계열 모형의 등급산출체계의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기술평가모형·기법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술평가모형 - 등급평가모형



또한, 대학·연구소 등 사업주체가 미확정된 특허, SW,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IP) 사업화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가치평가 결과의 공정성·신뢰성 향상과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 R&D성과물의 신속한 간이평가로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사업화 촉진이 기대된다.

구분	내용	
평가 방법론 구체화	수익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기반으로 기술기여도법 [정태적 할인현금흐름법(DCF), 동태적 할인현금흐름법(Dynamic DCF)], 증분현금흐름법(Incremental Cash Flows)으로 세분화
	비용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거래사례법에 로열티참조법을 추가하여 적용 방법을 구체화
	시장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투입비, 기술기여도 및 사업단계를 기초로 한 배수법(Multiple Method) 개발
간이평가기법 개발	R&D 배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투입비, 기술기여도 및 사업단계를 기초로 한 배수법 개발

기술평가 품질관리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성단계부터 정확한 기술·시장정보를 기반으로 공정한 기술평가 선행과 함께 체계적인 품질관리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기술가치평가를 수반하는 지식재산(IP)·기술 등 창의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가진단시스템, 사전검증제도, 기술가치평가서 검수, 사후검증제도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기술평가등급모형에서는 평가자간 편차 최소화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자신의 평가결과를 다른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비교·모니터링하는 기술평가 피드백시스템을 강화하여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였다.

| 기술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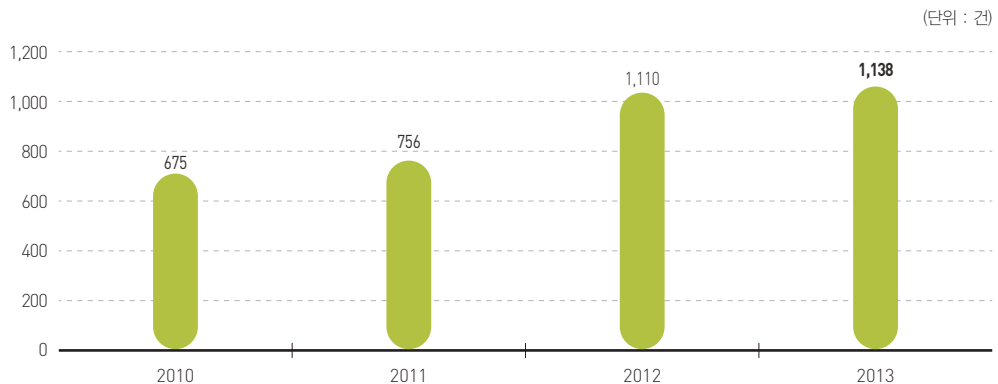


기술평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지식재산(IP)·기술 기반 창조금융 자원 확대

창조경제의 모토인 지식재산(IP)·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활용 확대를 위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인프라를 보유한 기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기반 보증제도인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및 기술이전보증을 국내 선도적으로 도입·운용 중이었으나, 창조금융 자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보증료, 보증료, 보증비율 등의 우대사항을 포함시킨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 인수보증」, 금융기관과의 「지식재산(IP) 협약보증」 등의 IP·기술 가치평가기반 맞춤형 보증 신상품을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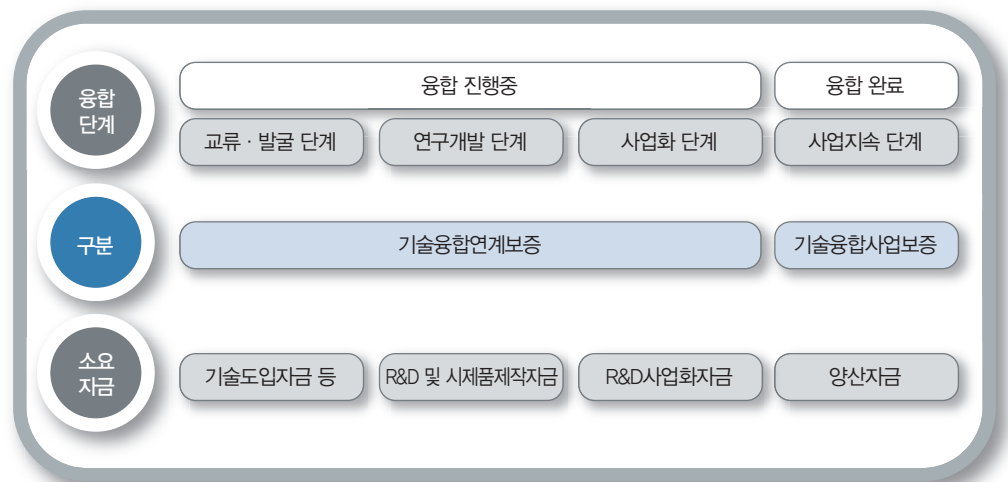
| 연도별 지식재산(IP) 보증 건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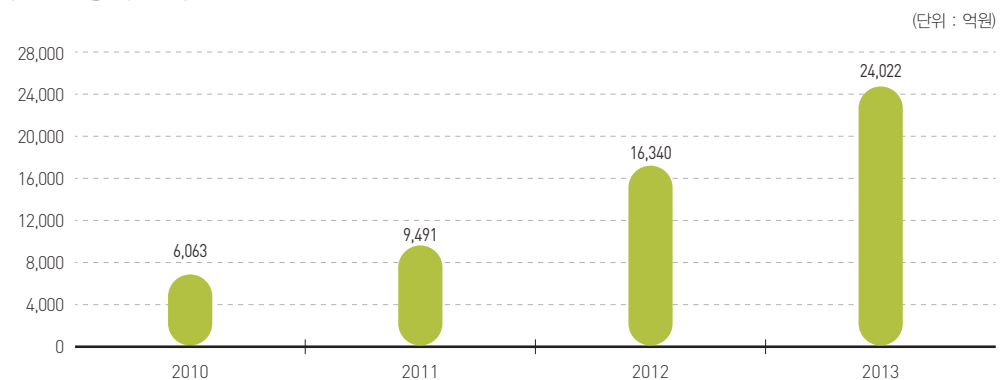
기술융합·R&D가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술 등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산업간 융합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료 감면 및 심사기준완화 등의 우대 조건을 갖춘 「기술산업융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또는 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격을 활용·사업중인 혁신형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기술산업융합보증 제도



또한, 기보의 전문평가인력, 풍부한 정책수행 경험 등의 기술평가역량을 필요로 하는 R&D 경제성 평가, R&D멘토링, R&D기획지원 등의 정부 R&D 지원사업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R&D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성장성이 높은 R&D에 대한 선별·지원하는 「R&D보증」을 확대하여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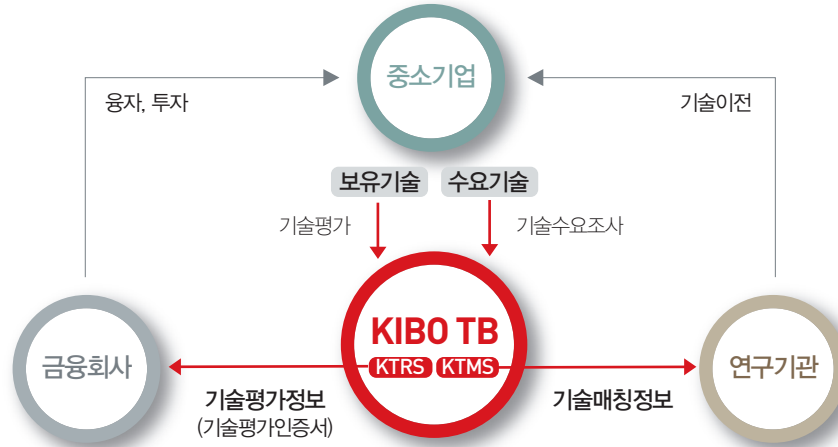
| R&D보증 지원실적



●● TB사업

TB(Technology Bureau)
사업 개요

기업 및 연구기관(대학·연구소)의 기술정보·기술수요정보·기술평가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기업의 기술평가 정보를 수요처(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기업·연구기관간 기술이전·융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TB의 주요업무

① 기술이전·융합 지원

수집된 기술을 분석·관리, 융합·기술 이전을 통해 원활한 사업화가 추진되도록 연계지원

- 기술정보 집중 및 매칭시스템 운영
- 기술융합 및 개량 지원
-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② 기술평가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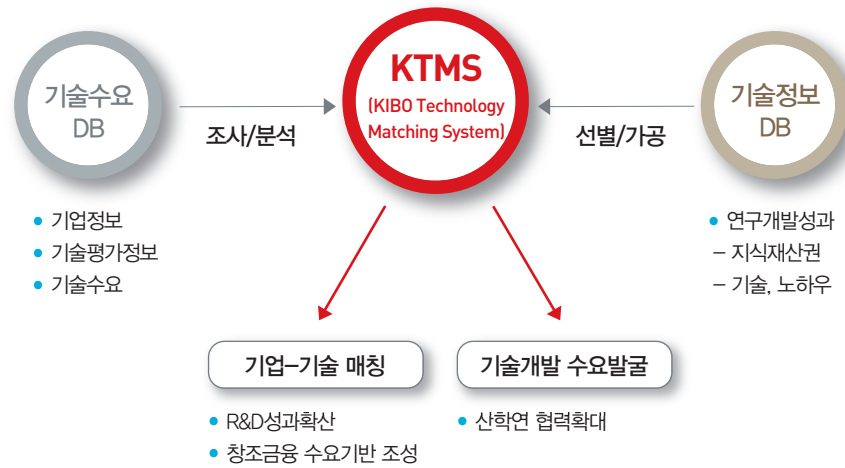
기술력 평가에 의한 투·융자 확산 및 인증수단 등으로 활용을 위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기술평가정보 제공

- 표준평가모형 체계구축
- 기술평가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맞춤형 기술평가정보 제공

TB 추진현황

‘13. 7월 본부조직인 TB사업실을 신설하였고, 대전융합R&D센터에서 TB업무를 추진중이며, ‘14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출연연(研)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R&D 결과물이 최적의 기업에 이전되도록 기업 및 기술정보의 수집·평가·관리, 수요·공급 발굴, 매칭(금융/비금융) 등 TB업무 전용 IT 플랫폼인 기술-기업 매칭시스템(KTMS, 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의 1단계 검색모듈 구축후, 2단계인 유사도 측정 및 추천모듈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정보 보유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기술이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TB 추진실적 및 성과

기술이전·융합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국방과학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성균관대학교 등 정부, 출연연,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 이전·사업화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3년 총 43건의 기술거래를 중개하고 기술수요자인 31개 기업에 대해 105억원의 기술융합연계보증을 지원하였다.

기술평가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 및 여타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연계를 통해 우대제도(대출금리 인하,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평가인증서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 관련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2		2013		증감율	
	제공건수	대출금액	제공건수	대출금액	제공건수	대출금액
건수 및 금액	2,575	2,500	3,297	5,264	28.0% ↑	110.6% ↑

보증연계투자

● 개요

기보는 기술혁신기업에 직접금융 조달기회 부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05.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12.6월 기금법령 개정으로 투자가 기보의 고유업무로 법제화 되었다. 특히, 신정부가 추구하는 “투자” 중심의 창조금융정책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융자 위주의 금융관행과 과도한 리스크 회피성향에서 벗어나, 시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점진적인 제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 투자종류

투자는 주식인수, 전환사채(CB)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방식으로 한다.

● 투자대상기업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 ① 법인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R&D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배제
- ② 투자심사일 현재 既 보증기업(또는 보증승인기업)
- ③ 기술사업평가 BB등급 이상
 -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 BBB등급 이상이어야 충족
-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 개별기업 투자한도

같은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단, 투자금액은 해당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기술평가 BB이상	기술평가 BBB이상
개별기업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개별기업 통합한도 (보증+투자)	50억원	100억원
관계기업군 투자한도	30억원	30억원

* 투자한도 : 기보 투자금액 기준

* 통합한도 : 기보, 신보, 보증재단의 보증금액 및 투자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

● 업무프로세스

기술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신용도 및 투자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 운영실적

2005년 투자시행이후 2013년말까지 80개 업체에 968억원을 투자하여 누적손익율 14.6%를 실현하였으며, 대출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 및 안정적인 사업영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초기 기업 중심으로 투자(56.9%)를 운용하여, 민간 후속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 실적 및 투자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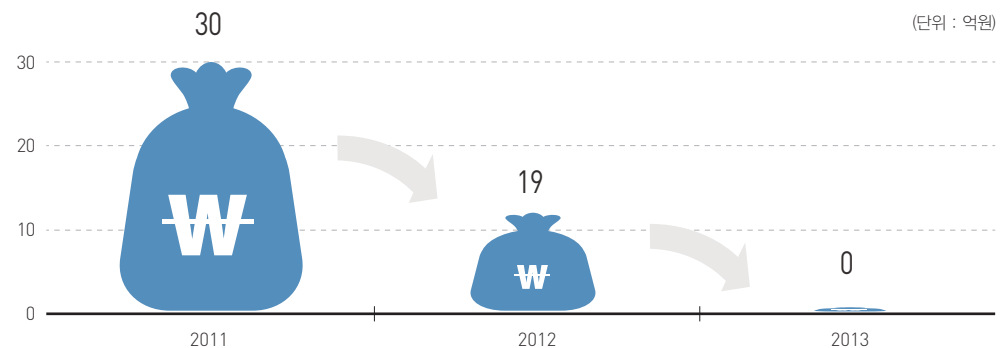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잔액
업체수	2	10	7	8	9	8	4	2	30	80	50
투자금액	5.0	85.0	81.5	90.0	90.1	95.0	55.1	35.0	431.8	968.5	690.3
투자수익	-	-	29.0	2.1	19.8	20.2	51.4	60.5	22.8	205.8	141.4

또한, 분기별 정기동향관리 실시, 부실 징후 발생 기업에 대한 집중동향 관리 등 면밀한 사후·성과 관리 실시를 수행하여, '13년에는 투자손실 발생 제로화를 실현하였으며, 이외 기존의 투자기업의 사업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금 회수 노력, 투자주식 매각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자산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손실 발생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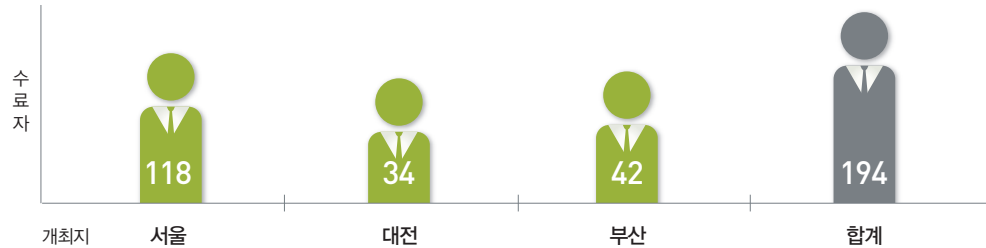
기업지원

● 기보벤처창업교실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기보가 주최하여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창업 붐을 조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3년 기보벤처창업교실 수료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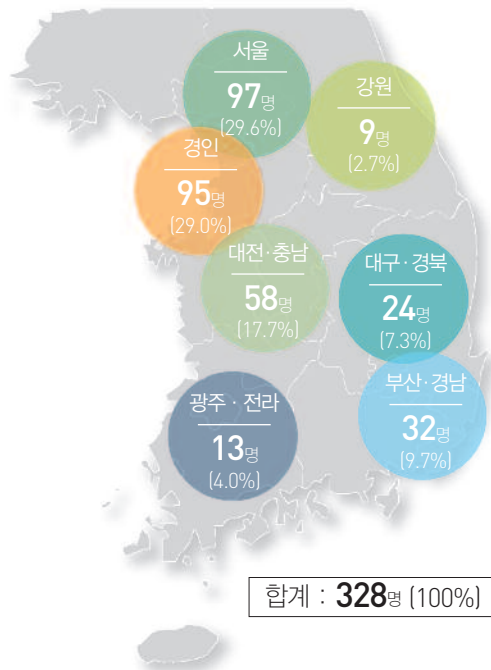
●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새싹기업(창업 후 2년 이내이고 신규보증금액 1억원 이내인 기술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정착과 성공창업을 유도하고자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성공사례, 지원제도,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의 1박 2일 커리큘럼의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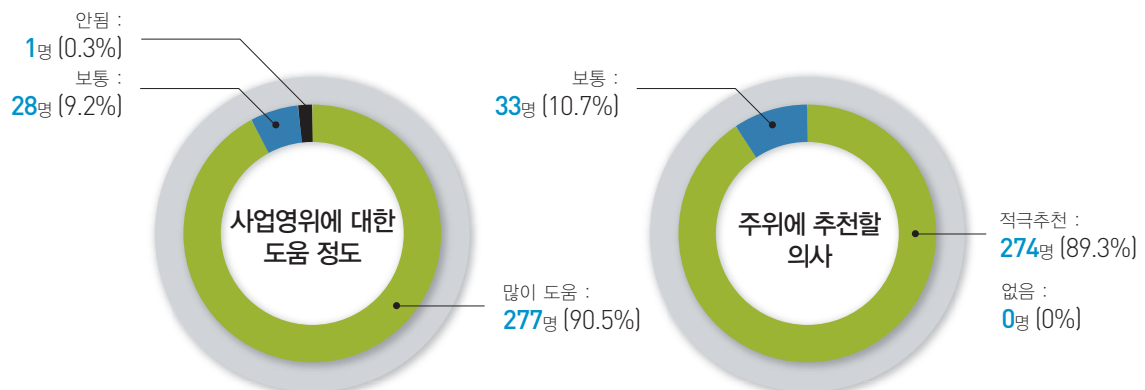
또한, 창업초기 기업이 사업초기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창업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창업으로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고, 인적 네트워크 결성을 바탕으로 새싹기업 참여자간 이업종 교류로 신사업분야 개척 및 업무파트너십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간 동반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3년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수료자 지역별 현황



2013년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과정강좌 설문조사 결과



● 기술 · 경영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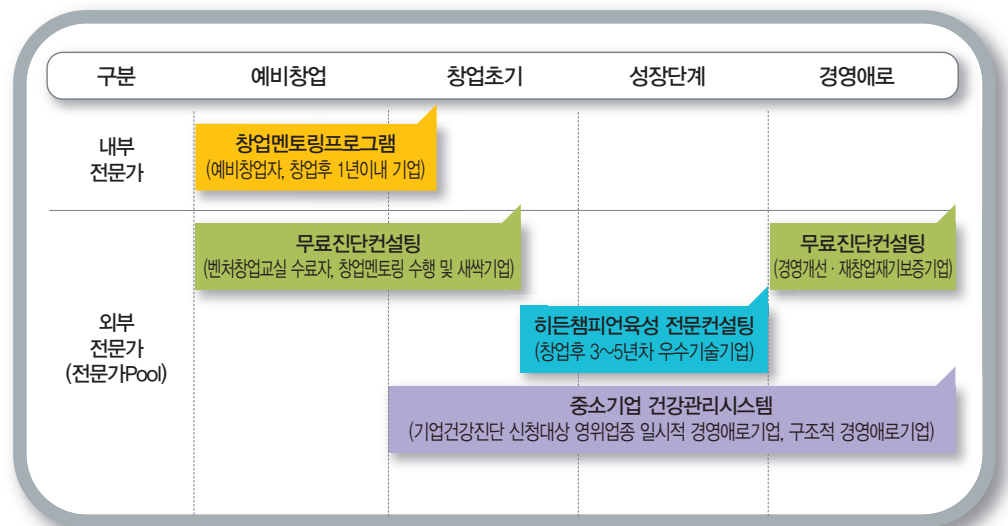
기업성장 전주기에 걸친 기술 · 경영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평가 및 보증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및 실패예 방을 위한 기업진단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에 위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과 무료진단 컨설팅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론칭과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기업의 사업현황 분석과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실현가능한 성공창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보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을 2012년부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기업의 「기업건강 진단 → 처방전 발급 → 맞춤형 치유」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후 3~5년차 보증이용 기업 중 우수기술기업을 발굴하여 미래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을 2014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기술 · 경영컨설팅 개요



2013년 기술 · 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무료진단컨설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합계
		(벤처창업교실 수료자)	(새싹기업강좌 수료자)		
지원건수	1,574	245		1,491	3,310
		[60]	[185]		



●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원

국가경제의 지속적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전체 보증공급의 69.9%인 13조 5,258억원을 벤처·이노비즈기업에 지원하였다.

벤처·이노비즈 보증공급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벤처기업	60,907	76,444	118,128	109,967	109,895	111,459	115,860
이노비즈	50,895	66,783	95,746	89,697	85,102	83,730	78,123
합 계*	72,652	93,204	140,220	132,619	128,650	131,778	135,258

* 합계는 벤처, 이노비즈 중복 데이터를 제외한 자료임 (재보증 제외)

● 벤처인 (벤처확인·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기금은 벤처인 운영을 통해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성장할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함은 물론, 벤처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정보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벤처인 전용 콜센터(1544-1120) 설치, 일대일 맞춤형 상담방 서비스를 시행 하는 등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1

창업(준비)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전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해주고, 창업 즉시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경영주가 만20~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
맞춤형창업성장 프로그램	•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6대분야* 해당기업 지원 * 1인창조, 녹색, 지식문화, 첨단뿌리산업, 이공계창업, 4050창업
특허창업 특례보증	•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
R&D보증	• R&D 전주기(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 지원
새싹기업 성공창업강좌	• 보증 1억원 이하 창업 2년 이내 기업 CEO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전략 및 성공실패 사례 교육
벤처창업교실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CEO에게 자금조달전략, 인사, 법무, IP관리 등 창업실무 교육
창업멘토링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기보의 전담직원이 6개월간 기업애로 해소 지원, 필요시 보증지원

2

도약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정보통신 솔루션개발, SI서비스용역, 문화콘텐츠 제작 등의 체결에 따른 프로젝트 전주기의 보증지원
예비스타벤처기업육성 특례보증	• 성장도약단계에 접어든 우수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육성
기술·산업융합보증	• 기술·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금융지원	• 지식재산(IP)의 미래가치 및 사업화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자금을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우대 지원 및 신규 고용(예정)인원 직접 채용 소요자금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콘텐츠(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제작 기업 지원
보증연계투자	•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과 직접금융 활성화
벤처이노비즈기업 확인평가	•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청 소관 이노비즈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및 확인
기술가치평가(기술이전/거래)	• 기술 이전·거래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 및 제시
기술평가인증(투/융자 참고용)	• 평가등급, 의견 등을 명시한 인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투융자 등에 활용

3 성장 / 성숙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이노비즈기업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과 금융지원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 15개 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은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기보는 부분보증 및 보증료 우대
상생협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등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후 취급실적에 따라 대기업 등이 특별출연
시설자금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확충 등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심사 등을 우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수출 등 거래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출관련 자금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인수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부여 및 재무구조 개선
기술이전/M&A 중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업무
녹색인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또는 사업의 기술우수성과 녹색적합성을 확인 · 인증
R&D과제의 경제성 · 사업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중인 R&D과제 또는 기술사업에 대해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4 위기 / 재도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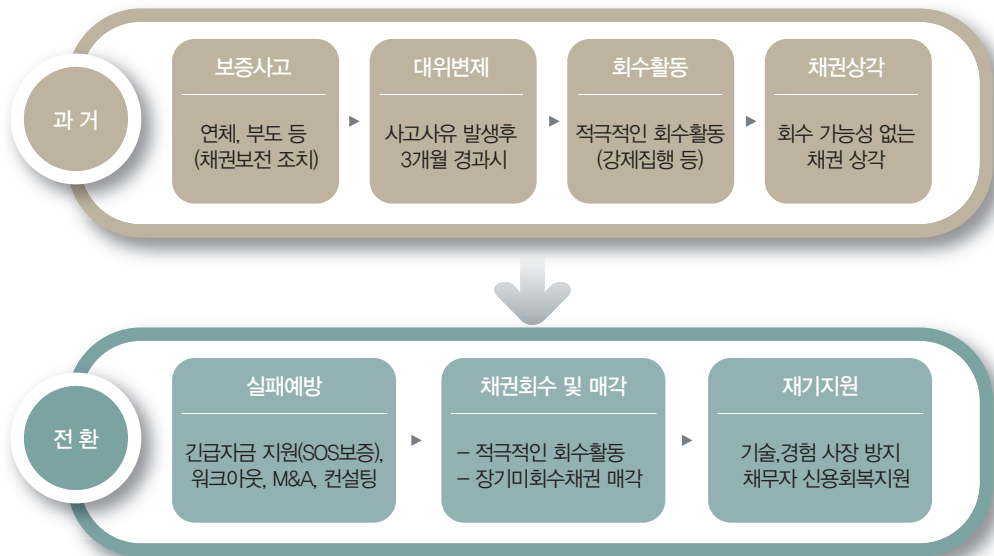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긴급경영안정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등 긴박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증지원
경영개선지원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유동성지원(Fast-Track)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절차(Fast-Track)로 유동성 지원
공동워크아웃기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은행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패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처방→치유」방식으로 기보, 중기청 등 진단기관이 협력 지원

실패예방 / 구상권관리 / 재기지원

● 실패예방과 재기 기회 확대를 통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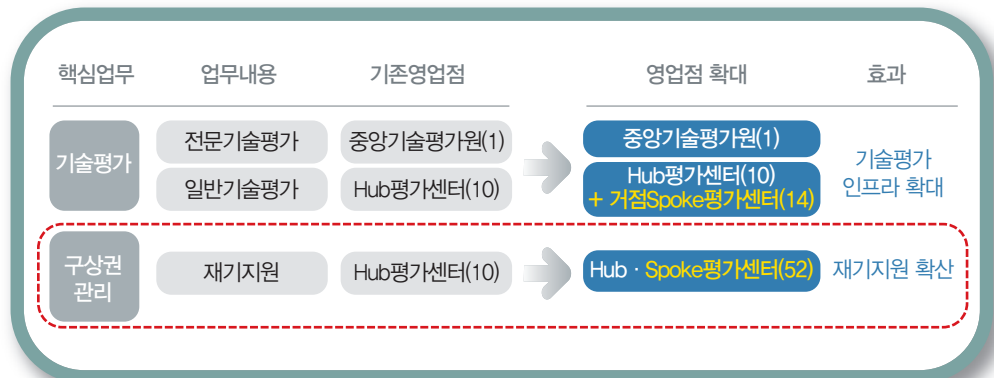
기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구상권 회수 중심의 일원화된 채권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실패예방과 재기지원으로 채권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적보증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 도약 → 성장/성숙 → 위기/재도전」의 생애주기를 아울러 중소기업 생태계 순단계를 포괄하는 기술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단위 : 개)

취급가능 영업점
확대조정으로
재기지원 확산을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



실태예방 프로그램 (SOS보증) 및 재기지원보증 활성화

기보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SOS보증”을 지원하여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성실 실패자를 선별하여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채도전이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종류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SOS보증	경영개선지원보증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긴급경영안정보증	• 주요거래처 조업중단 등 긴박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증지원
재기지원보증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 실패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2		2013	
	업체수	보증금액	업체수	보증금액
경영개선지원보증	259	1,072	289	933
긴급경영안정보증	95	515	29	220
재기지원보증	72	118	80	81.2

● 사고, 구상권관리

기보는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구조개선, 실패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고율 개선 및 보증자산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고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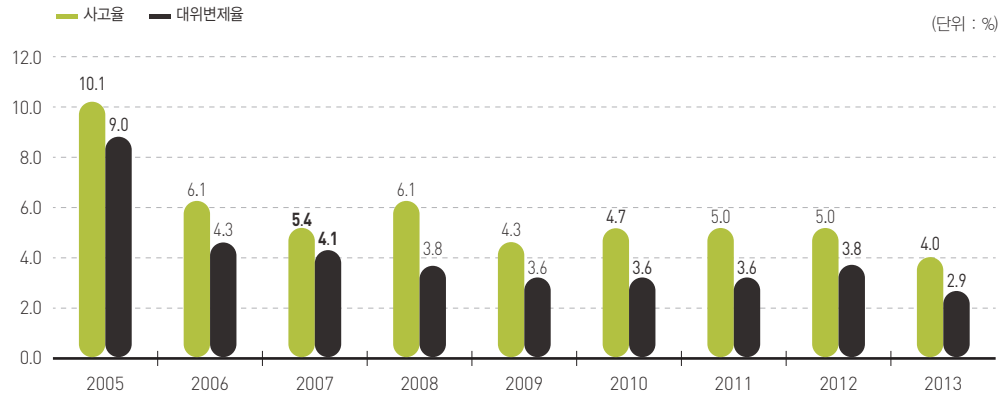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 분	사고순증		비고
	예측치	실적	
금 액	10,304	7,766	2,538 ↓
사고율	5.6%	4.0%	1.6% ↓

● 주) 유동화회사 편입기업 포함 및 완성보증계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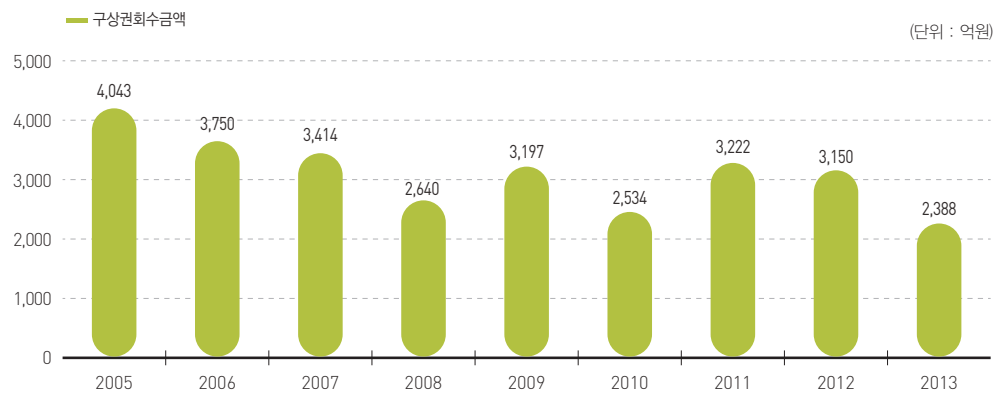
연도별 사고·대위변제율 추이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지연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금 보증사고·대위변제율은 2009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상권회수 목표 설정 및 성과

정부의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반영하여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지원을 위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 미회수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하는 등 변화된 내·외부적 채권회수 여건을 반영하여 '13년 기금 전체 구상권회수 목표를 1,8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영업점별 회수자원의 특성과 환경요인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배분 및 성과평가를 통해 회생·파산면책 채무자의 누적적 증가 등으로 악화된 회수여건에도 불구하고 2,388억원의 구상권을 회수하였다.



장기 미회수채권 관리의 효율화

회수실익이 희박한 장기 미회수채권을 선별 매각하여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대한 회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매각후 KAMCO 회수분에 대해서는 8년간 사후정산을 통한 성과를 공유

인재채용 및 인력개발

● 인재채용

기보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기보가 추구하는 종합적인 기술기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소요인력을 바탕으로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을 파악하여 채용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 고용없는 성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을 수립,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기보는 신규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정원증원 및 자체 채용여력 확보 노력을 통하여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33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신입직원중 7명을 고졸자를 채용하여 정부권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이밖에도 기보는 고용을 제고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정부정책을 선도하기 위하여 경비절감으로 마련한 인건비로 장애인 27명, 고졸자 15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을 74명 채용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보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정보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을 승인받아 2014년 중에는 신입직원을 확대 채용할 예정이다.

신입직원 채용실적

(단위 : 명)

구 분	채용인원	지방인재	여성	이공계	고졸
신입직원	33	16	15	14	7

청년인턴 채용실적

(단위 : 명)

구 분	채용인원	장애인	지방인재	여성	이공계	고졸
2012년	58	23	40	32	8	11
2013년	74	27	51	48	8	15
계	132	50	91	80	16	26

계약직원 채용실적

(단위 : 명)

구 분	사무지원인력	계약인력	시간제근로인력	합계
계약직원	5	2	6	13

● 인력개발

기보는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 직원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보는 인력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본부에 HRD 전담조직인 인력개발팀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자체 HRD 연수를 위한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기보의 HRD 체계는 분야별 사내강사 등 전문인력 Pool의 인적자원과 연수원, Cyber 인력개발원, Cyber 문화센터 등의 Hardware, 연수이수학점제, 연수규정 등의 Software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전직원 기본역량, 계층별 리더십 역량과 직무역량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과정, 전문과정, 고급과정의 3단계로 세분하여 각 직위 및 직무별 연수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자기주도적인 상시 학습문화 정착을 위해 Cyber 인력개발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수의 업무연수를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2013년도 기보의 인력개발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기초한 인력운영계획 및 인력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년도 연수 실적에 대한 결과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2013년도 종합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기보는 對중소기업 교육시스템 구축과 함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직무 콘텐츠 개발, 상시적 모바일러닝 구현,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연수 확대 등의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금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단위 : 명)

연수 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내부 집합연수	1,358	1,370	1,711
외부 위탁연수	657	535	535
사이버연수	3,841	3,351	4,158
기술문화연수	55	58	60
계	5,911	5,314	6,464



고객만족

●● 추진개요

2013년도 CS업무는 고객만족경영을 통한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응대서비스 역량 강화, 고객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부진부문 집중개선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전년대비 0.3점이 상승한 89.7점을 획득하였다.

●● 추진방향

- 고객접점 직원의 고객응대서비스 역량 강화로 영업점 CS수준 상향 평준화
- 서비스 부진부문 발굴 및 집중 개선활동 전개
- 고객의 소리(VOC)에 기반한 고객만족 추진

●● 고객만족 추진현황

■ 'Kibo CS 매뉴얼 북'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접점 직원의 고객응대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상황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고객응대 매뉴얼 발간 ● 기금의 업무흐름을 고객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객접점별 고객응대 지침 마련 ● 업무프로세스를 고객 지향적으로 개선
■ CS슬로건 공모 및 현수막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CS슬로건을 공모하여 고객접점 직원들의 CS마인드를 제고하고 기금의 고객만족경영 의지를 고객에게 홍보
■ CS광장을 통한 CS사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 부진 부문 및 타기관 CS사례 전파(30건)를 통한 고객접점 직원들의 고객중심 마인드 제고 및 CS 실천을 유도
■ CS리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활동이 영업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영업점 CS리더(52명)를 대상으로 CS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전사적인 고객만족경영의 매개체 역할 수행
■ CS클리닉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및 우편설문고객만족도조사에서 부진 영업점을 대상(27개 영업점)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고객서비스 개선
■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CS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채널로 접수(806건)된 VOC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고객만족 제도개선에 반영
■ 고객중심의 상담창구환경 및 고객응대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시 고객이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일산 기평에 '상담부스' 시범 설치 ● 상담직원 전면에 배치한 PC 모니터를 상담자의 좌측 또는 우측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고객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담할 수 있게 고객입장 배려
■ 불만고객에 대한 영업점 장의 A/S Call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장이 직접 고객(329명)에게 전화 등을 통해 VOC 청취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

FGI(집단심층토론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9명)으로 고객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에 반영

CS 평가 및 보상

- Best CS-Man 발굴 포상(20명)
- 고객추천 우수친절 직원 선정 포상(10명)
- 전화설문 고객만족도 우수직원 포상(20명)
- 고객센터 우수 상담원 포상(30명)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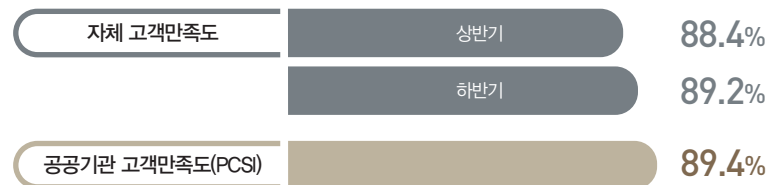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윤리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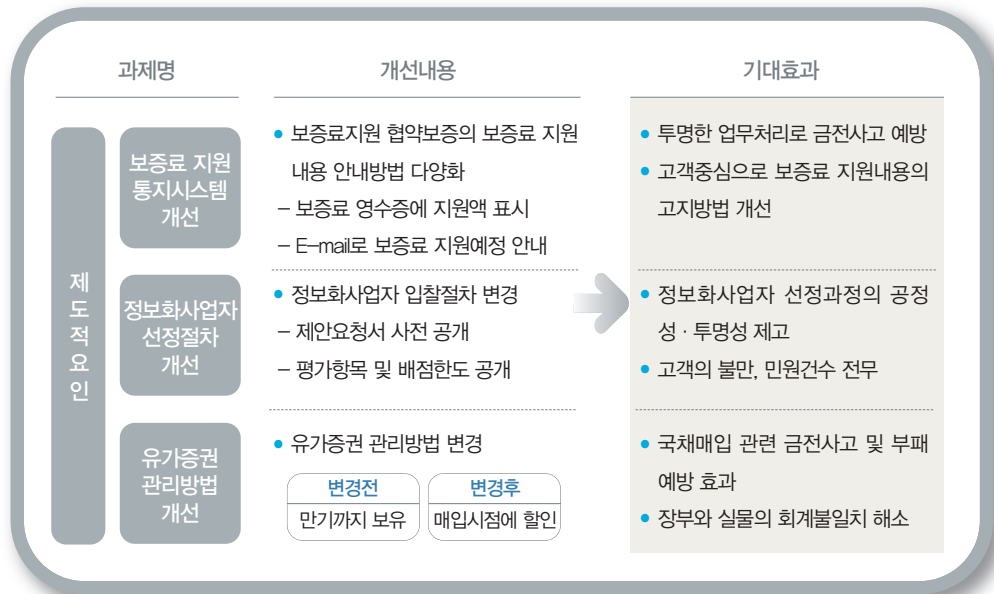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리스크
발굴 · 개선 노력

● 윤리경영 추진방향 설정

- 경영환경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한 윤리경영 계획 수립
- 평가결과와 환류를 통한 윤리경영 및 청렴활동 강화

● 윤리경영 추진현황

1부서 1과제 자율적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투명성 확립(총 11건)



영업점의 청렴멘토가 주도한 고객 · 직원간의 윤리공감대 형성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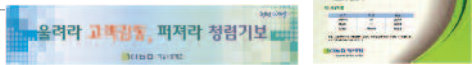
「Clean Kibo」의
윤리경영 우수문화를
대내외 확산 · 공유

청렴파트너 기관에 대한 「Clean Kibo」 노하우 전수



반부패 청렴업무에 대한 유관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와 정보교류를 위해 매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제공

자발적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윤리의식 고취

공모형 청렴행사를 개최하여 직원과 고객의 관심 및 의식변화 유도

구 분	추진실적	
청렴슬로건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의지 및 CS 함축 문안 공모 - 354건 응모(263명 참여) 	
고객제안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도 및 CS 향상 방안 공모 - 41건 제안(4명 포상) 	
		
		청렴슬로건 우수작 고객제안 Festival

홍보활동을 통한 윤리청렴 문화 전파

구 분	추진실적	
청렴부채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부채 제작(7,150개)하여 고객, 임직원, 유관단체 배포 	
윤리경영 우수사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청렴 관련 정책자료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 	
공익신고제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안내, 권익위 공익신고 화면 링크 	
		
		청렴부채란? 고객과 직원의 윤리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작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여 직원의 '윤리역량' 강화

구 분	추진실적	
'찾아가는 윤리교실' 전국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윤리교육 및 대화의 장 마련 - 14개 영업점(252명 참석) 	
명사초청 윤리경영 강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 초청강연회 개최 - 강사 : 윤은기 석좌교수 - 영상물 제작하여 교재 활용 	
선비정신 문화체험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멘토 대상의 현장체험 - 한국선비문화수련원(53명) 	
		
		찾아가는 윤리교실 명사초청 윤리강연

● 윤리경영 추진성과

-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
 - 준정부기관(86개) 1위, 전체 공공기관(653개) 2위
 - 종합청렴도 8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 유지
- 국민신문고 대상(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종합청렴도

기술보증기금 8.81%

준정부기관 8.35%

전체공공기관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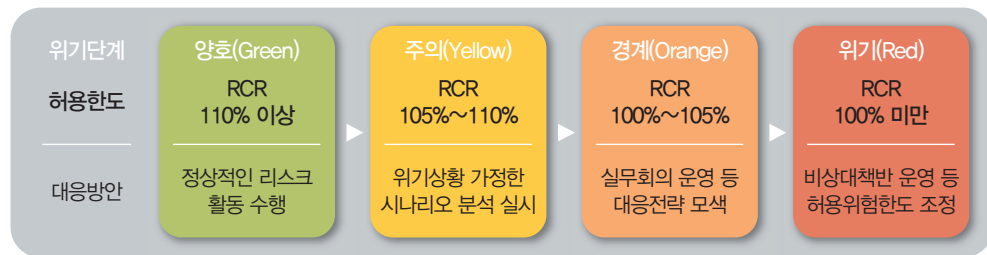
리스크관리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자산의 신용위험과 운용자산의 신용·시장·유동성위험 및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된 운영위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리스크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 감지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였다. 2013년도에는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전사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고율을 시현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에 따라 기술금융지원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위기대응능력 제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과거의 위기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통합위험지표인 리스크보상배수(RCR)와 연계한 위기단계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였다.

위기단계별 Contingency Plan 운용으로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 강화



● 리스크보상배수(RCR) : 총위험량 대비 현재 보유중인 운용자산의 보유수준으로 지급여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질적지표

●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로 기술금융지원의 내실화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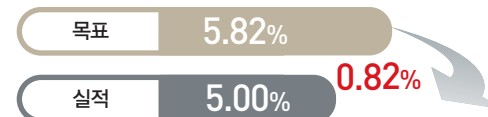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적 보증을 중점·핵심부문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보증목표를 효과적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리스크 변동단계별 차등관리 및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용 등 단위 영업점별 리스크 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기술금융정책과 조화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로 보증 및
리스크목표 초과 달성

보증공급



총보증리스크율



정보화업무

● 기보 모바일 앱(App) 서비스 오픈

중소기업의 업무편의를 위해 '13년 12월부터 '기보 모바일 앱' 금융서비스를 시작했다. 기보 모바일 앱은 보증신청, 보증내역, 기술평가, 보증상품, 벤처·이노비즈 인증정보, 금리정보 등 주요 서비스와 함께 기술이전, 기업지원, 영업점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Push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별로 맞춤형 정보 및 상품안내가 가능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고객편의에 크게 기여하였다.

기보 모바일 앱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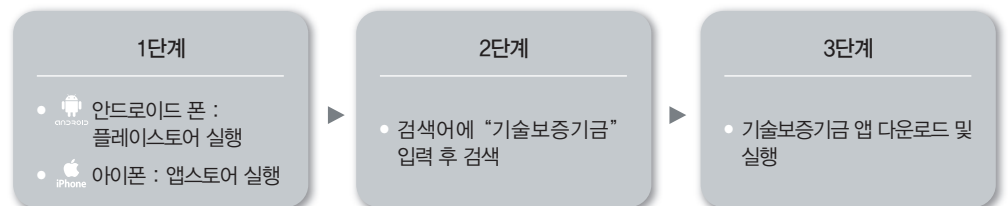
● 메인 화면



● 주요 업무 화면

주요기능	서비스 내용
보증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기술(평가)보증 신청방법 안내 및 보증신청
보증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진행상황, 보증내역, 예상보증료, 보증한도, 기한연장대상 등 조회 발급서류함(보증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의 종류, 절차 및 기술평가시스템 안내
창업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멘토링 제도 안내 및 신청
보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별 지원가능한 최신 보증상품에 대한 지원대상 및 상품 안내
기술이전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이전, 기업M&A에 대한 안내 및 매도/매수 신청
벤처·이노비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이노비즈 제도안내, 신청방법 및 인증요건 등 안내 나의 인증내역(벤처·이노비즈 인증 내용 조회)
영업점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점별, 지역별 및 현재 위치 기반(GPS) 영업점 조회 경로 탐색 서비스 및 전화 연결 기능
PUSH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별 맞춤형 정보 제공 보증상품별 지원대상 고객에게 맞춤형 메시지 서비스 제공

설치방법



이용방법

- 기존 사이버영업점 회원 :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사용
- 신규 회원 : 일반회원(아이핀, 실명인증) 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사용
 - ※ 자금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 가능

※ 이용 문의 : 기보 정보관리부 모바일 앱 담당자 (Tel. 051-606-7606, 607)

● 영업점 통신환경 개선

저속의 영업점 네트워크 회선속도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현상을 해소하고, 기존 네트워크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점 통신환경을 개선하였다.

기존 업무용 통신회선을 고속회선으로 변경하고 다수의 통신장비를 1대로 통합함으로써, 업무처리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통신장비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되었다.

영업점 통신환경 개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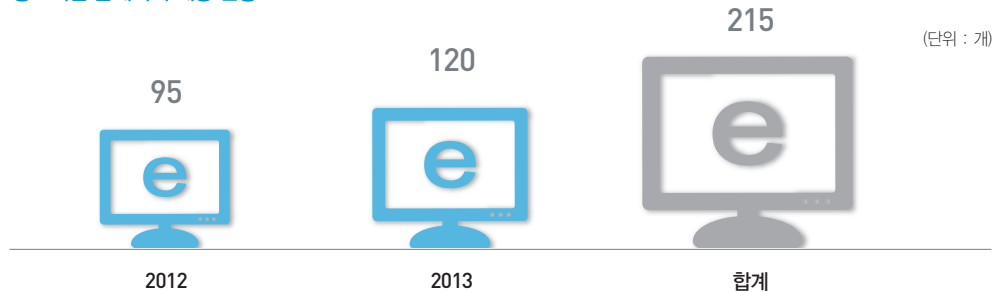
구 분	개선 前	개선 後
통신회선	저속 전용선	고속 전용선
속 도	256Kbps ~ 1Mbps	5Mbps ~ 20Mbps
장 비	3대[라우터, WAN가속기, VPN장비]	1대[UTM장비]

●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기금거래 보증기업 중 전산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기존 홈페이지 제작 템플릿(10개) 외에 기업의 업종,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템플릿 15개를 추가로 자체 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업종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120개의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기업홍보 및 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공 현황



●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

기보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내부통제 강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침해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자체 보안관제 역량 강화,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금융ISAC) 연계 등 상시 보안관제체계 구축을 완료하였다.

특히, 자체 보안관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위협 종합분석시스템”의 도입으로 다양한 장비의 위협정보를 각각 분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비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상관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보안관제가 가능해졌다.

사이버위협 종합분석시스템 화면



또한, 연중무휴 보안전문가에 의해 24시간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2013년 한해동안 132건의 침해징후와 45건의 보안권고사항을 처리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였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DDoS 대응훈련, 해킹 대응훈련 등 실전에 가까운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정보보호담당자 및 임직원의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기금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였다.

이러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노력으로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13, '14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상위등급(양호등급)을 달성함으로써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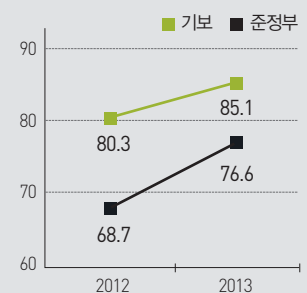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2년('12년, '13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상위등급 달성!

'12년
80.31점
양호등급

'13년
85.13점(↑4.82점)
양호등급

32개 준정부기관
평균
76점 (보통등급)



사회공헌 활동

● 개요

기보는 사회적책임경영을 통하여 전 임직원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 기보에 부과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금융 공기업의 모습을 구현하고 지속가능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회공헌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 추진 방향 및 주요 실적

2013년 기보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보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연계된 사회공헌활동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다.

추진 방향

주요 실적

이해관계자 Needs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공헌

|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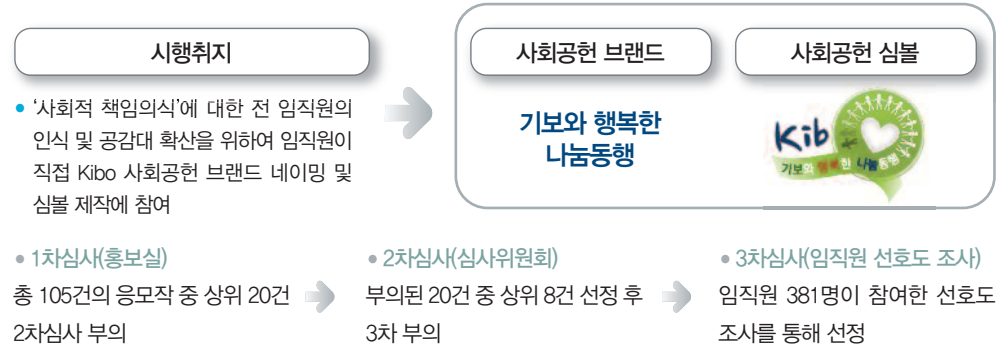
수요조사(직접면담)		Needs 도출	사회봉사 프로그램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기회 제공	봄·여름·가을·겨울 오감만족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경남 밀양시 산내면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인력 지원 및 소득 증대	1사 1촌 농어촌 봉사활동
정기결연자	어린이재단 독거노인	소외·취약계층 정기지원	지역소외계층 재능기부 무료급식 지원, 헌혈봉사

| 「봄·여름·가을·겨울 오감만족(五感滿足) 프로젝트」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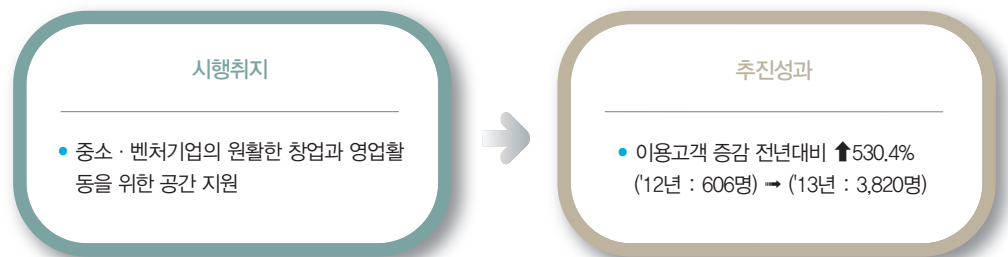


설립목적, 업무특성 및 보유역량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Kibo 사회공헌 브랜드 네이밍 · 심볼」 개발 (임직원 직접 참여)



스마트 워킹센터(SWC, Smart Working Center)



기타 「기보형 사회공헌활동」 시행

지원대상	세부활동	2012	2013	증감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기보벤처창업교실(무료)	168명	194명	↑15.5%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 강좌(무료)	250명	328명	↑31.2%
	무료 경영진단 컨설팅	200건	245건	↑22.5%
체험시설개방	과학기술전시관 개방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	3,026명	5,758명	↑90.3%
직원참여형	1사 1촌 농어촌 봉사활동(연4회)	272명	566명	↑108%



봄·여름·가을·겨울 오감만족 프로젝트



농어촌 봉사활동

국제교류 및 협력

기보는 기술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기술평가시스템(KTRS)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세계 선진기술평가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베트남 등 개도국 유관기관에 기술평가시스템 전파를 통하여 금융한류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보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제 26차 ACSIC(아시아 신용보완기관 연합)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신용보완 제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보증기관들과의 신용보증 네트워크를 강화함은 물론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금융 홍보를 통해 기보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다. 앞으로도 기보는 보다 활발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여 기술금융의 Global Lead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 주요 성과



● 제26차 ACSIC 총회 개최 (부산)

제26차 ACSIC (주제 : ACSIC의 창조적 운영을 통한 아시아 경제 활력 부흥)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 중국 광둥성 정부와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

한 - 광둥성 우수중소기업 연계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국제 교류 현황

기금을 방문한
해외 유관기관

시기	기관명	교류내용
2월	일본 정책금융공사(JFC)	기술평가시스템 학습
3월	터키 국영연구소(TUBITAK)	기술금융 및 R&D 지원 학습
7월, 8월	태국 재무부 및 신용보증공사(TCG)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 학습
8월, 10월	베트남 과학기술부 및 특허기술활용연구원(NIPTEX)	기술금융, 특허기술가치평가 학습
9월	베트남 기술혁신원	한-베 기술기업 매칭을 위한 업무협약
11월	프랑스 기술혁신지원기관(BPI-France)	상호 제도 지식공유(문화산업평가 외)
11월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IDF)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학습
12월	중국 중소기업협회	기술평가시스템 학습

기금의
국제회의 참가 외

시기	회의명	교류내용
6월	제 58차 ICSB 연차총회 참가	세계 각국 중소기업지원책 습득
6월	유럽투자은행(EB) 방문	KTRS 소개
9월	제 23차 ACSIC Training Program 참가	KTRS 소개



● 'EUROSME 2013' 컨퍼런스 참가

EU집행위(EC)에서 해외우수사례인 KTRS의 평가모형 담당자를 패널 토론자로 초청

● 베트남 기술혁신원(SATI) 대상 연수 실시

SATI 직원을 대상으로 총 6주간의 기술평가시스템 연수 실시

부록

APPENDIX



● ● 결산 재무제표

'13년도 요약 재정상태표

2013.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자 산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2,306,611
현금및현금성자산	7,131
단기금융상품	1,311,594
단기투자증권	805,993
기타유동자산 등	181,893
II. 투자자산	415,939
장기금융상품	183,049
장기투자증권	228,875
기타투자자산 등	4,014
III. 일반유형자산	122,320
토지	24,889
건물	70,684
기계장치 등	10,408
건설중인자산	16,339
IV. 무형자산	22
산업재산권	22
V. 기타비유동자산	509,359
구상채권	408,783
보전채권	774
보증금 등	99,803
자산총계	3,354,251

부 채 및 순 자 산	
과 목	금 액
I. 유동부채	161,174
선수수익	143,492
기타	17,682
II. 장기충당부채	812,602
대위변제준비금	699,264
보전금지급준비금	69,829
퇴직급여충당부채	43,510
III. 기타비유동부채	47
부채총계	973,823
I. 기본순자산	10,360,891
설립시 기본재산	21,768
출연금	10,339,123
II. 적립금및잉여금	(8,076,768)
전기이월잉여금	(7,897,931)
기타순자산의 증감	60,000
당기재정운영결과	(238,837)
III. 순자산조정	96,305
투자증권평가손익 등	96,305
순자산총계	2,380,428
부채와 순자산 합계	3,354,251

'13년도 요약 재정운영표

2013. 1. 1 ~ 2013. 12. 31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총 원 가	수 익	순 원 가
I. 프로그램순원가	976,010	(275,805)	700,205
산업금융지원	976,010	(275,805)	700,205
II. 관리운영비			42,725
인건비			19,658
경비 등			23,067
III. 비배분비용			54,669
자산감액손실 등			54,669
IV. 비배분수익			67,584
자산운용수익 등			67,584
V. 재정운영순원가			730,016
(= I + II + III - IV)			
VI. 비교환수익 등			491,178
부담금수익			473,724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7,454
재정운영결과(= V - VI)			238,837

'13년도 요약 순자산변동표

2013. 1. 1 ~ 2013. 12. 31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10,360,891	[7,897,931]	82,613	2,545,573
보고금액	10,360,891	[7,897,931]	82,613	2,545,573
II. 재정운영결과		238,837		238,837
III. 조정항목		60,000	13,692	73,692
투자증권평가손익			13,693	13,693
자산재평가이익			[1]	[1]
기타순자산의증감		60,000		60,000
IV. 기말순자산 (= I - II + III)	10,360,891	[8,076,768]	96,305	2,380,428

●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S

이사 홍성제

감사 박대해

이사 박종만

● 비상임이사

NON-EXECUTIVE
DIRECTORS

이돈희



정규영



길태근



이사장 김한철

전무이사 김기홍

이사 강석진



양희관



김은호



차왕조

● 운영위원

기술보증기금 운영위원 명단

2013. 12

* 운영위원회의 설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7조

구 분		운영위원		
위원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지명 위원 (5명)	● 금융위원회 지명 (1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고승범
	● 기획재정부장관 지명 (1명)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박춘섭
	● 중소기업청장 지명 (1명)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김흥빈
	● 중소기업은행장 지명 (1명)	중소기업은행	수석부행장	김규태
	● 국민은행장 지명 (1명)	국민은행	전무이사	민영현
위촉 위원 (7명)	●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 (3명)	신한은행	부 행 장	이동대
		부산은행	부 행 장	백경호
		하나은행	부 행 장	김병호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 (1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 (1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송재희
	● 기술관련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의 협의하여 위촉 (2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 회 장	김이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 원 장	박구선

● 주요 일지

일 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15일 ● 2월 27일 ● 3월 7일 ● 3월 14일 ● 3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 정책 세미나 실시 국민신문고대상(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 경산영업소 개소 용인기술평가센터 개소 기업은행과 '우수기술창업기업 금융지원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일 ● 4월 4일 ● 4월 8일 ● 4월 8일 ● 5월 9일 ● 5월 20일 ● 6월 27일 ● 6월 28일 ● 6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보증기금 창립 24주년 기념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시행 '기술 · 산업 융합보증' 시행 국민은행과 '특별출연관련 업무협약' 체결 기업은행과 '신발산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KT와 '문화콘텐츠산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정규직 신입직원 33명 채용 창업진흥원과 '공동지원 협약' 체결 PC-OFF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23일 ● 7월 3일 ● 8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개편(7부 3실 2부속실 → 11부 2실 4부속실) 명사 초청 윤리경영 강연회 개최(강사 윤은기 교수)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1일 ● 10월 15일 ● 10월 18일 ● 10월 31일 ● 11월 12일 ● 11월 28일 ● 12월 5일 ● 12월 20일 ● 12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 실시 한 - 광동성 중소기업국과 상호협력 MOU 체결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산업자원부와 '무역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 26차 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ACSIC) 회의 개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교류 협약' 체결 '2013년 창업활성화 유공' 중기청장 표창 수상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모바일 앱(App)' 서비스 시작

● 영업점 현황 (가나다 순)

구 분	주 소	대표전화
가산기술평가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1906호	02)818-4300
강남기술평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5층	02)2016-1300
강릉기술평가센터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2-1021
광주기술평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80번지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00
광주서기술평가센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 3층	062)941-6833
구로기술평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05 JNK디지털타워 18층	02)6124-6400
구미기술평가센터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4 기업은행 3층	054)455-7881
김포기술평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신한프라자 8층	031)980-8600
김해기술평가센터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기업은행 4층	055)330-2100
녹산기술평가센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0 외환은행 3층	051)832-0460
대구기술평가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대구북기술평가센터	대구 북구 원대로 130 LH빌딩 5층	053)356-0421
대구서기술평가센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0 덕원빌딩 7층	053)652-1861
대전기술평가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기보빌딩 1층	042)483-7451
대전동기술평가센터	대전 중구 대종로 540 중앙종합금융증권 2층	042)250-0700
동래기술평가센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051)517-6070
목포기술평가센터	전남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 2층	061)284-0394
부산기술평가센터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3층	051)606-7699
부천기술평가센터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부천테크노파크 301동 102호	032)327-1451
부평기술평가센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303호	032)623-6140
사상기술평가센터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71 하나은행 2층	051)320-3400
사하기술평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하단동) 시우스빌딩 3층	051)250-7808
서울기술평가센터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서초기술평가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4층	02)3476-7265
성남기술평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6층	031-750-4800
송파기술평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601호	02)3400-7900
수원기술평가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국민연금공단 6층	031)8006-1500
순천기술평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 청우2빌딩 6층	061)729-9333
시화기술평가센터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KT&G 안산지사 3층	031)496-5911

구 분	주 소	대표전화
아산기술평가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00
안산기술평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9층	031)401-0260
안양기술평가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6 화일빌딩 3층	031)459-2071
양산기술평가센터	경남 양산시 중앙로 216 기업은행 3층	055)387-6571
용인기술평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9(김량장동, 2층)	031)8020-4000
울산기술평가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52)268-8721
원주기술평가센터	강원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2층	033)730-8300
의정부기술평가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44 석천빌딩 4층	031)820-0300
익산기술평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063)853-2151
인천기술평가센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인천중앙기술평가센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7 용진빌딩 5층	032)420-3500
일산기술평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타워 15층	031)931-7200
전주기술평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11층	063)270-9800
종로기술평가센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22층	02)738-7980
중앙기술평가원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1층	032)830-5770
진주기술평가센터	경남 진주시 대신로 310 기업은행 4층	055)750-1111
창원기술평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055)210-4010
천안기술평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02호	041)629-5911
청주기술평가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6 산남동인템프라자 6층	043)290-9513
춘천기술평가센터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5층	033)241-7161
충주기술평가센터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현대자동차 3층	043)842-1591
평택기술평가센터	경기 평택시 평택1로 48 비전프라자 3층	031)656-7221
포항기술평가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기업은행 3층	054)271-4900
화성기술평가센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4 우리들유통타운 C동 207호	031)299-8200
대전기술융합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41 3층	042)610-2200
서울기술융합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1층	032)830-5770
익산기술평가센터 소속 군산영업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063)443-2151
대구기술평가센터 소속 경산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58 씨티원빌딩 4층	053)859-9000
창원기술평가센터 소속 마산영업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9길 신한은행 4층	055)242-3933
광주기술평가센터 제주영업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27-0271

